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혼혈청소년도 당당한 한국인입니다

- ◇ 일 시 : 2006년 3월 30일(목) 14:00-17:00
- ◇ 장 소 :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 ◇ 주 최 : 국가청소년위원회
-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자료집

인 쇄 : 2006년 3월

발 행 : 2006년 3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행인 : 이배근

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3-3437 / F. (02)2253-3818

<http://kyci.or.kr>

인쇄처 : 아름인쇄

비매품

본 간행물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집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명칭변경 기념 청소년인권보호 토론회 행사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 정 표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 이배근(한국청소년상담원 원 장)
인사말 : 최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14:10-14:40)

혼혈인 문제의 실상과 대책
•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고문)

실태조사 발표 (14:40-15:00)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실태
• 이영선(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영상물 상영 (15:00-15:05)

휴 식 (15:05-15:20)

토 론 (17:00)

혼혈청소년으로 살아가기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현실과 대안
• 배기철(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회장)
한국문화와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
• 한성열(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혼혈청소년의 법제도적 검토
• 이명숙(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
혼혈인의 인권실태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 김동심(두레방 상담실장)

정리 및 폐회 (17:00)

목 차

개회사

환영사

기조강연

혼혈인 문제의 실상과 대책	9
----------------------	---

실태조사 발표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실태	15
-----------------------	----

토론

•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현실과 대안	73
• 한국문화와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	75
• 혼혈청소년의 법제도적 검토	85
• 혼혈인의 인권실태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91
부록 1.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109

환 영 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이배근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사회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혼혈인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늘어남에 따라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일부 성공한 이들에게만 국한되고 있으며 다수의 혼혈인은 사회적 무관심속에 묻혀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혹은 또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국제결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인구가 확대되어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지원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국민적 관심과 적절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다문화가정청소년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토론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사회의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에서 우리사회 다문화가정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NFL 슈퍼볼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의 말을 인용하며, 인사말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인종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꿈을 믿으세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기조강연

혼혈인 문제의 실상과 대책

혼혈인 문제의 실상과 대책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고문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에 대해 집요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역사 이래 500여 회 가량이나 외세에 의한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배달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강인한 노력이 이어져 왔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민족의식은 타민족, 이종족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민족 성향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의 이면을 살펴본다면 순수단일을 자부하기에는 너무나 기구하고 치욕적인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거듭된 외침을 당할 때마다 많은 재화를 강탈당하고 수모를 겪어 왔으며, 더욱 수치스럽고 한스러운 것은 언제나 나약한 여성들이 재물이 되고 희생양이 되면서 순혈주의와 선민사상에 모독과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려 말의 몽고(원) 침략과 조선조 병자호란 당시에 원청 두 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백성들 중 특히 아녀자들이 성(性)의 희생물로 이용되었음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며, 이들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하여도 몇몇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환향녀(화향년의 어원)라 하여 정절을 상실하였다는 이유에서 이들을 모욕하고 혐오한 것도 순혈주의의 배타적인 의식이 우리 사회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사실이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동양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자녀가 외모로는 순혈인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배타적 차별이 없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6·25 전란을 전후하여 우리와는 다른 서양계 혼혈인의 등장은 순혈주의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미군정 3년에 뒤이어 건국 2년 만에 민족상잔의 6·25 동란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전면 침략에 불가항력적이었던 우리의 요청에 의해 미국과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 16개국 젊은 병사들이 흘린 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의 이면에는 전쟁의 와중에 미군과 연합군에 의해 여지없이 희생된 나약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비정스런 전란의 와중에 가정을 가진 유부녀까지 유린당하는 사태가 저질러졌고,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는 피임이나 낙태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기에 원하지 않은 혼혈인 자녀를 낳게 됨으로써 가문에서 배척을 당하고 가정에서 내침을 당함으로써 그들은 정상가정을 꾸릴 수 없이, 혼혈인 자녀와 함께 갖은 냉대와 차별 속에 험한 세파를 이겨내며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하소연 한번 해보지 못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혼혈인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당하는 편견과 멸시와 소외를 지켜보며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 한 많은 여성들의 억울한 삶을 우리들 그 누가 얼마나 헤아려 보살피 준 일이 있었습니까?

국가와 국민은 이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했고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혈인을 배척하는 완고하고 편협한 순혈주의에 집착하여 전쟁의 희생양이었던 혼혈인과 그의 어머니를 소위 ‘기존종 여성과 그 자녀’로 비하 매도하기를 상투로 하였고, 혼혈인들을 불륜 관계의 부산물로 국민의식에 각인되도록 오도하며 책임 회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감추고 싶은 비밀인 혼혈인 문제를 지워내려고 민족적 불운

인 해외입양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며 대한민국은 온 세계를 상대로 개방되어 교류협력하며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7백만을 헤아리는 재외동포가 세계 각국에서 처지에 상응한 역할을 하며 세계시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때늦은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혼혈인과 국제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책임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가난하여 국민 복지를 돌볼 여유가 없던 시기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OECD 가입국이며 세계 수출 10위권의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는 마땅히 만민평등의 인권 존중과 생활 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 미증유의 국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피해 여성과 혼혈인들 그리고 2세대 자녀들을 더 이상 소외시키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비하 매도하여 추락시킨 그들의 명예를 바로 세워줘야 할 것이며,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회복은 물론이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인류의 평화적 공생공존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선진 한국의 당위적 사명과 면목을 위해서도 혼혈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적 협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발표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실태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실태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김민정

한국청소년상담원

I. 서론

그동안 혼혈인에 대한 관심은 혼혈인이 경험하는 대단한 성공이나 불우한 환경 등 몇몇 소수의 특수한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혼혈인의 삶에 대해서 막연히 어렵게 살았으며 많은 소외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극복한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혼혈인의 삶은 성공 또는 좌절의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혼혈인의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¹⁾에 의하면 혼혈인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1세대 혼혈인들은 ‘전쟁 혼혈 고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었듯이 전쟁 중 강간이나, 성매매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피해의식이 강하다. 1세대 혼혈인들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 까지 혼혈인의 개념도 모른 채 살다가 청소년 시기나 성인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이 혼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1세대는 사회전반에 혼혈인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경험이 전무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한 편견과 차별, 소외 등은 심했으며 따라서 혼혈인 1세대는 소외감, 좌절감, 패배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에 비해 2세대 혼혈인은 기지촌 성매매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산업화 및 체계화되는 시기인 1960년대 이후 태어난 혼혈인들로 1세대와는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1세대 혼혈인과는 달리 결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유사한 배경에서 출생하였다. 1세대와는 달리 기지촌이라는 일반 거주지와 분리된 지역에서 미군과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성장하였고 혼혈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에서 다른 혼혈인들과 어울리면서 자랐다. 따라서 이들은 1세대에 비하여 극심한 고립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3세대 혼혈인은 기지촌이 눈에 띄게 쇠퇴하게 된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이들을 말한다. 3세대 혼혈인들은 보다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진화되는 시기인 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과거에 비해 90년대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변화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점차로 유연성을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3세대 혼혈인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차이를 긍정적인 차이로 전환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실시된 실태조사는 혼혈인 1세대와 2세대 즉 성인 혼혈층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 어두운 삶을 다룬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혼혈인 문제는 심각할 것이라는 추정과 예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혼혈인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조사한 자료로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특히 3세대 혼혈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들만의 고유한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

혼혈인의 삶은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이런 세대의 변화 속

1)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혼혈인들의 삶의 환경, 생활양식, 사고방식도 다양하며 세대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조사는 3세대 혼혈인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하여 이들을 다문화가정청소년²⁾으로 지칭하고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다양한 경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인식하는 자기모습과 가정환경, 심리·사회적 경험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울러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3세대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이해를 기대해본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영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인적사항

응답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교형태 등이 포함되며, 경제적 상황으로 가정형편과 최저생계 유지비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국가에 대한 소속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으로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와 주변 친구나 이웃들이 자신을 누구로 대하고 있는지 등 국가와 관련된 자기규정 문항이 포함된다. 또한 이민 희망 여부와 이민의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가족사항

응답자의 가족과 관련한 문항들로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과 부모의 학력,

2) '이중/다문화가정청소년'의 경우 일부 혼혈인 복지단체에서 창안한 용어로 인종적, 문화적 차원에서 혼혈인을 고려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혼혈아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정체성 혼란으로 보고 다른 것보다도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부모의 직업, 부모의 인종 유형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4) 문제관련 경험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별, 놀림, 폭행, 심리 및 정신적 문제 등의 몇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차별이나 외모에 대한 놀림 등의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이와 관련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차별에 관해서는 길거리 사람들의 반응, 구직에서의 차별, 학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외모에 관해서는 친구나 친척으로부터의 이와 관련한 놀림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폭행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폭행 경험 여부와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심리 및 정신적 문제로는 컴퓨터 과다 사용 여부, 우울이나 무력감 경험, 스트레스로 인한 담배나 술 경험, 자살충동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5) 미래 모습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미래 희망과 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원하는 미래 모습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미래 모습을 꿈꾸는데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한 직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미래 모습이 희망적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6)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

최근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성공한 혼혈인(체육인, 연예인 등)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한 이들의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혼혈인들에게 보이는 사회적 관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7) 자아정체감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발달이 성숙되는 단계로 적응문제나 장래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들의 상황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체감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아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자아정체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성 (Stability)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된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2) 목표지향성(Goal-directedness)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동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뜻한다.

(3) 자기존재의 독특성(Uniqueness)

현재의 능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을 말한다.

(4) 대인역할기대(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상이한 여러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다소 일시적이고 특정적인 여러 가지 자아상을 의미한다.

(5)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아상을 말한다.

(6) 자기주장(Self-assertiveness)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말한다.

<표 1> 조사영역별 세부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성별, 연령, 학교형태, 가정형편 등
2. 가족사항	동거인,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 인종유형, 주변사람과의 관계 등
3. 국가에 대한 소속감	한국인에 대한 정체감, 이민 희망 여부, 이민이유 등
4. 문제 관련 경험	사회적 차별 수군거림, 구직에 대한 차별, 불공평대우, 차별에 대한 대응 등
	외모에 대한 놀림 친구나 친척으로부터의 놀림
	폭행 폭행과 성폭력
	심리·정신적 문제 컴퓨터사용, 우울 및 무력감, 스트레스로 인한 술 담배, 자살충동 등
5. 미래 모습	원하는 미래모습, 영향을 준 인물, 직업선택, 미래 희망 여부 등
6.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 혼혈인에게 보이는 사회적 관심에 대한 생각 등
7. 자아정체감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3.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만10세 ~ 만18세(초6~고3)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서울, 인천, 동두천, 전북, 평택, 남양주, 오산, 화성, 부천 등의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성별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 50%로 동일하였다. 학교급은 중학생

55.7%, 고등학생 31.4%, 초등학생 12.9%로 주로 중·고생이 많았다. 학교형태는 일반학교 학생이 80.0%였으며 혼혈인학교로서 대안학교 형태가 20.0%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 인적사항

구분		명(%)
성별	남	35(50.0)
	녀	35(50.0)
학교급	초	9(12.9)
	중	39(55.7)
	고	22(31.4)
학교형태	일반학교	56(80.0)
	대안학교	14(20.0)
지역	동두천	19(27.1)
	서울	18(25.7)
	인천	12(17.1)
	전북	7(10.0)
	남양주	6(8.6)
	평택	4(5.7)
	오산	2(2.9)
	화성	1(1.4)
	천안	1(1.4)
계		70(100.0)

2) 조사 도구

설문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설문지와 자아정체감 척도3)이다.

설문지는 앞서 ‘조사내용’에서 정리했듯이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사회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7개 영역의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개발은 선행연구4)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설문

3) 최창호 (1995) 自我正體感 成長 프로그램이 聽覺障礙高等學生의 自我正體感 및 適應力에 미치는 效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4) 김미혜 (1983). 혼혈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한경아(1994). 한국혼혈인의 실태와 문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지를 제작하였으며 다문화가정청소년관련 단체 종사자의 문항 검토를 받아 내용을 보충 및 수정하였다. 또한 예비설문지를 중2와 고1 학생 각 1명에게 실시하여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Dignan(1965)의 이론을 배경으로 김형태(1989)가 새롭게 제작한 ‘구성 요인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형태(1989)가 제작한 척도는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문항은 10개로 총 7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요인 중 허위척도 10문항을 제외한 6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사용하였다.

3) 조사 과정

1개월이라는 짧은 일정 안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다문화가정청소년을 찾는 일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표 3. 참조)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표집을 선정하였다. 표집 선정시 다문화가정청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을 고려하되 연구 기간의 제한으로 자료 발송 및 송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자 수는 전체 6,121명의 대상 중 중·고생 비율이 12.9%인 789명으로 파악되어 약10%인 79명을 목표로 하였다.

<표 3> 학교급별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학생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충청	전라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55	203	133	243	117	82	10	1,259	288	253	312	47
	108	36	15	25	8	14	0	176	14	19	24	2
	24	-	-	-	-	-	-	-	-	-	-	-
	25	11	9	19	2	17	0	45	2	7	9	1
합계	688	250	157	287	127	113	10	1,480	304	279	345	49

조사 과정은 선정 지역의 해당 교육청을 통해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있는 학교를 파악하였다. 섭외 기관은 약 240여개의 민간단체 및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였다. 이들 중 36개 기관이 설문을 허락하여 최종 70명의 대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의 경우 교감선생님에게, 민간단체는 단체장에게 설문의 취지와 연구 목적 등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 후 기관에서 해당 학생에게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별로 평균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에 따라 교차분석과 T-검증 그리고 ANOVA를 이용하여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II. 조사 결과

조사결과는 크게 1차 분석과 심층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조사영역별 세부 내용을 오늘날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가정에 대한 인식’, ‘심리·사회적 인식’의 측면으로 재편성하여 기술하였다. 2차 분석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혼혈유형’과 ‘가정형편 수준’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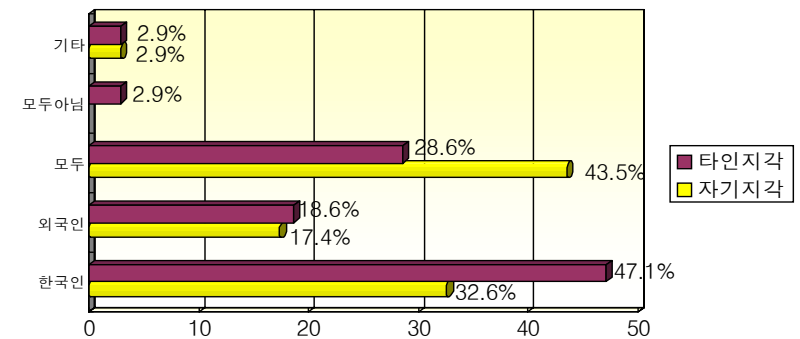
가. 1차 분석

오늘날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나 자신’, ‘가정’, ‘사회’의 측면에서 이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1. 나에 대한 인식

1) 국가 소속감

다문화가정청소년에게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43.5%가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2.6%는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국가 소속감에 대한 타인의 지각은 47.1%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28.6%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여긴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국가 소속감에 대한 자신 및 타인의 지각

<표 4> 국가 소속감에 대한 지각

항목	자기지각	타인지각	명(%)
한국인	25(32.6)	33(47.1)	5.137 (ns)
외국인	12(17.4)	13(18.6)	
한국인 외국인 모두	30(43.5)	20(28.6)	
한국인 외국인 모두 아님	-	2(2.9)	
기타	2(2.9)	2(2.9)	
계	69(100.0)	70(100.0)	

다문화가정청소년 중 자신을 ‘한국인’ 및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어머니(母)가 아시안인 청소년과 비아시안인 청소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의 국가 소속감에 대한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모(母)가 비아시안인 청소년의 21.4%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60.0%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 61.5%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한국인’이라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표 5> 모(母)가 아시안과 비아시안인 청소년의 국가 소속감에 대한 자기지각 및 타인지각

항목	자기지각		타인지각	
	아시안	비아시안	아시안	비아시안
한국인	15(60.0)	9(21.4)	16(61.5)	16(38.1)
외국인	4(16.0)	7(16.7)	-	12(28.6)
한국인 외국인 모두	5(20.0)	25(59.5)	9(34.6)	11(26.2)
한국인 외국인 모두 아님	-	-	1(3.8)	1(2.4)
기타	1(4.0)	1(2.4)	-	2(4.8)
계	25(100.0)	42(100.0)	26(100.0)	42(100.0)
χ^2	12.118**		11.047*	

**p<.01, *p<.05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형태에 따라 본인이 지각하는 국가 소속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국가 소속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은 45.5%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여기며, 36.4%가 ‘한국과 외국인 모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며, ‘한국과 외국인 모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1.4%,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청소년이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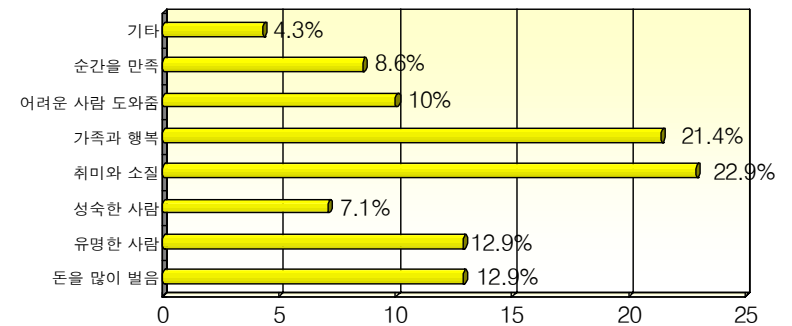
<표 6> 학교 형태별 국가 소속감의 지각

항목	일반학교	대안학교	계	χ^2
한국인	25(45.5)	-	25(36.2)	11.291*
외국인	8(14.5)	4(28.6)	12(17.4)	
한국과 외국인 모두	20(36.4)	10(71.4)	30(43.5)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아님	-	-	-	
기타	2(3.6)	-	2(2.9)	

*p<.05

2) 미래의 나의 모습

다문화가정청소년이 바라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의 22.9%가 ‘내 취미와 소질 개발’, 21.4%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12.9%가 ‘돈을 많이 버는 것’, 12.9%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10.0%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

<표 7>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

항목	명(%)	χ^2
돈을 많이 버는 것	9(12.9)	17.086*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9(12.9)	
성숙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	5(7.1)	
내 취미와 소질 개발	16(22.9)	
가족들과 행복하게 하는 것	15(21.4)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7(10.0)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6(8.6)	
기타	3(4.3)	
계	70(100.0)	

*p<.05

다문화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미래 모습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 25.0%가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23.2%가 ‘내 취미와 소질 개발’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 21.4%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21.4%가 ‘내 취미와 소질 개발’이라고 응답하여 학교 형태에 따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미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

항목	명(%)			χ^2
	일반학교	대안학교	계	
돈을 많이 버는 것	8(14.3)	1(7.1)	9(12.9)	18.020*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6(10.7)	3(21.4)	9(12.9)	
성숙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	3(5.4)	2(14.3)	5(7.1)	
내 취미와 소질 개발	13(23.2)	3(21.4)	16(22.9)	
가족들과 행복하게 하는 것	14(25.0)	1(7.1)	15(21.4)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6(10.7)	1(7.1)	7(10.0)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6(10.7)	-	6(8.6)	
기타	-	3(21.4)	3(4.3)	
계	56(100.0)	14(100.0)	70(100.0)	

*p<.05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청소년들이 ‘어머니(32.4%)’, ‘아버지(19.1%)’의 영향을 받아 원하는 미래 모습을 꾸려가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이웃(1.5%)’, ‘대중매체(2.9%)’는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미래 모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미래 모습에 대해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하여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36.4%가 ‘아버지’, 24.2%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40.0%가 ‘어머니’, 11.4%가 ‘친구나 또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미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

<표 9> 미래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항목	명(%)			χ^2
	남	여	계	
어머니	8(24.2)	14(40.0)	22(32.4)	57.588***
아버지	12(36.4)	1(2.9)	13(19.1)	
친구나 또래	3(9.1)	4(11.4)	7(10.3)	
선생님	2(6.1)	3(8.6)	5(7.4)	
이웃	1(3.0)	-	1(1.5)	
유명인	-	3(8.6)	3(4.4)	
대중매체	1(3.0)	1(2.9)	2(2.9)	
신문, 잡지	1(3.0)	2(5.7)	3(4.4)	
학교공부	-	2(5.7)	2(2.9)	
기타	5(15.2)	5(14.3)	10(14.7)	
계	33(100.0)	35(100.0)	68(100.0)	

***p<.001

3) 희망하는 직업

다문화가정청소년들에게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해야 할 직업을 물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17.1%가 의사, 학자와 같은 ‘전문직’, 12.9%가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 10.0%가 군

인, 경찰과 같은 ‘군 관련 종사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학생 20.0%가 의사, 학자와 같은 ‘전문직’, 17.1%가 군인, 경찰과 같은 ‘군 관련 종사자’를 희망하는 반면, 여학생 20.0%가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 14.3%가 화가, 사진사, 디자이너와 같은 ‘예술직’, 14.3%가 의사, 학자와 같은 ‘전문직’으로 나타나 성별 희망 직업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원하는 미래를 위한 직업

항목	남	여	계	명(%)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4(11.4)	-	4(5.7)	18.943*
전문직(의사, 학자 등)	7(20.0)	5(14.3)	12(17.1)	
자영업(상점경영)	1(2.9)	-	1(1.4)	
서비스업	1(2.9)	3(8.6)	4(5.7)	
교직(유치원, 초중고교사 등)	2(5.7)	7(20.0)	9(12.9)	
군 관련 종사자(군인, 경찰 등)	6(17.1)	1(2.9)	7(10.0)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게이머)	2(5.7)	1(2.9)	3(4.3)	
예술인(화가, 사진사, 디자이너)	2(5.7)	5(14.3)	7(10.0)	
체육인(운동선수, 스포츠 해설가)	4(11.4)	-	4(5.7)	
연예 및 방송인(가수, 배우, 모델, 아나운서 등)	3(8.6)	5(14.3)	8(11.4)	
기타	3(8.6)	8(22.9)	11(15.7)	
계	35(100)	35(100)	70(100)	

*p<.05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문화가정청소년 39.1%는 ‘미래의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29.0%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 직업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23.2%는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이유

항목	명(%)	χ^2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20(29.0)	33.246***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16(23.2)	
직업에 대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1(1.4)	
기타	5(7.2)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7(39.1)	
계	69(100.0)	

***p<.001

4) 미래의 희망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 집단의 미래 희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 53.6%가 ‘희망적이다’, 23.2%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 50.0%가 ‘그저 그렇다’, 42.9%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대답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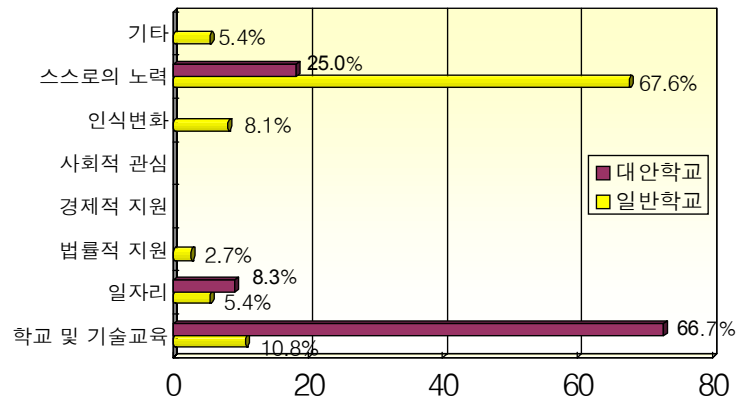
<표 12>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의 미래의 희망

항목	일반학교	대안학교	계	명(%)
매우 희망적이다	13(23.2)	6(42.9)	19(27.1)	9.865***
희망적이다	30(53.6)	1(7.1)	31(44.3)	
그저 그렇다	13(23.2)	7(50.0)	20(28.6)	
비관적이다	-	-	-	
매우 비관적이다	-	-	-	
계	56(100.0)	14(100.0)	70(100.0)	

**p<.01

그렇다면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청소년에게 질문한 결과,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57.1%)’, ‘학교 및 기술 교육지원(24.5%)’이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이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 67.6%가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 66.7%가 ‘학교 및 기술 교육 지원’이라고 대답하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의 희망적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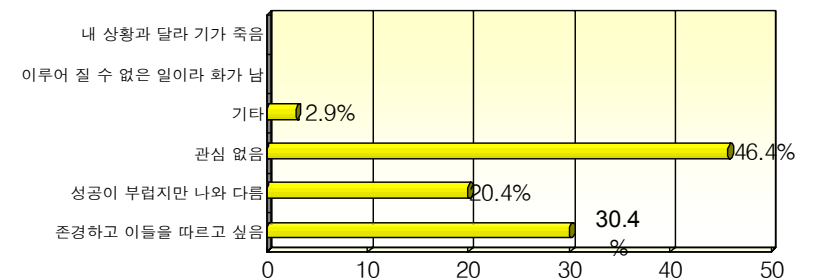
<표 13>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의 희망적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항목	일반학교	대안학교	계	χ^2
학교 및 기술 교육 지원	4(10.8)	8(66.7)	12(24.5)	16.490**
일자리 지원(직장, 취업)	2(5.4)	1(8.3)	3(6.1)	
법률적인 지원(호적, 이민법)	1(2.7)	-	1(2.0)	
경제적인 지원(생계비)	-	-	-	
주위사람들의 관심	-	-	-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8.1)	-	3(6.1)	
내 스스로의 노력	25(67.6)	3(25.0)	28(57.1)	
기타	2(5.4)	-	2(4.1)	
계	37(100.0)	12(100.0)	49(100.0)	

** p<.001

5)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혼혈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6.4%가 ‘별로 관심이 없다’, 30.4%가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다’, 20.3%가 ‘성공이 부럽지만 자신과는 다르다고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4>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생각

<표 14>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생각

항목	명(%)	χ^2
존경하고 이들을 따라하고 싶다	21(30.4)	27.522***
성공이 부럽지만 나와 다르다고 느낀다	14(20.3)	
별로 관심이 없다	32(46.4)	
기타	2(2.9)	
이들의 성공이 내 상황과 달라 기가 죽는다	-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화가 난다	-	
계	69(100.0)	

***p<.001

다문화가정청소년은 혼혈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 가정 남학생의 경우, 65.7%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다문화 가정 여학생 47.1%가 ‘존경하고 이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여 성공한 혼혈인을 보는 남녀간의 관점 차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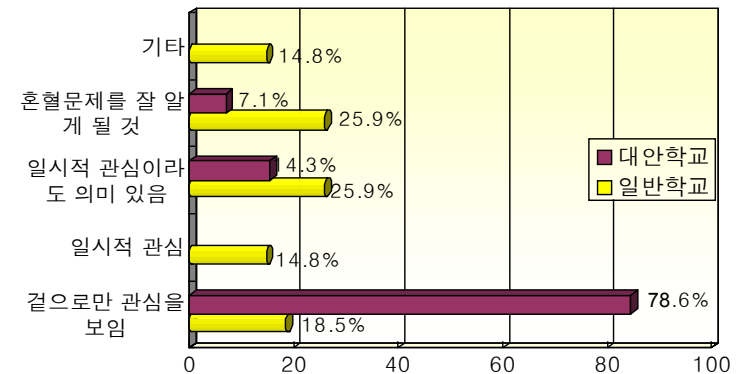
<표 15>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성별 성공한 혼혈인에 대한 생각

항목	명(%)			χ^2
	남	여	계	
존경하고 이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	5(14.3)	16(47.1)	21(30.4)	12.161**
성공이 부럽지만 나와 다르다고 느낀다	6(17.1)	8(23.5)	14(20.3)	
별로 관심없다	23(65.7)	9(26.5)	32(46.4)	
기타	1(2.9)	1(2.9)	2(2.9)	
이들의 성공이 내 상황과 달라 기가 죽는다	-	-	-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화가 난다	-	-	-	
계	35(100.0)	34(100.0)	69(100.0)	

**p<.01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요즘 혼혈인에게 보이는 사회적 관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0.9%가 ‘실제 문제는 모르고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23.5%가 ‘일시적인 관심이라도 의미가 있다’, 22.1%가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 혼혈인 문제를 잘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청소년 25.9%가 ‘일시적인 관심이라도 의미가 있다’, 25.9%가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 혼혈인 문제를 잘 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청소년 78.6%가 ‘실제 문제는 모르고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지각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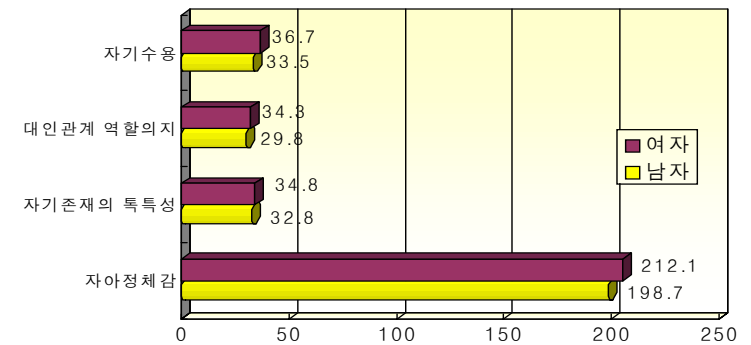
<표 16>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견해

항목	명(%)			χ^2
	일반학교	대안학교	계	
실제 문제는 모르고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10(18.5)	11(78.6)	21(30.9)	19.549***
일시적인 관심이라 얼마 못 갈 것이다	8(14.8)	-	8(11.8)	
일시적인 관심이라도 의미가 있다	14(25.9)	2(14.3)	16(23.5)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 혼혈인 문제를 잘 알게 될 것이다	14(25.9)	1(7.1)	15(22.1)	
기타	8(14.8)	-	8(11.8)	
계	54(100.0)	14(100.0)	68(100.0)	

***p<.001

6) 자아정체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성별 자아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청소년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M=212.1, SD=24.8)이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M=198.7, SD=22.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자기 존재의 독특성(M=34.8, SD=4.0), 대인관계 역할의지(M=34.3, SD=4.9), 자기수용(M=36.7, SD=6.4)에서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다문화 가정의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성별 자아정체감 차이

<표 17> 성별 자아정체감 차이

자아정체감	남자 (N=35)		여자 (N=35)		전체 (N=7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정성	33.8	5.2	35.6	5.5	34.7	5.4	-1.4
목표지향성	35.7	6.0	36.3	6.8	36.0	6.4	-0.4
자기존재의 독특성	32.8	3.5	34.8	4.0	33.8	3.9	-2.2*
대인관계 역할의지	29.8	5.1	34.3	4.9	32.0	5.5	-3.8***
자기수용	33.5	6.9	36.7	6.4	35.1	6.8	-2.0*
자기주장	33.1	5.9	34.4	6.4	33.7	6.1	-0.9
자아정체감	198.7	22.1	212.1	24.8	205.4	24.3	-2.4*

***p<.001, **p<.01, *p<.05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중 일반학교 재학 청소년과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두 집단 간의 자아정체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자아정체감 수준에는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간의 자아정체감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 중 자기 수용의 영역에서 일반 학교 청소년(M=35.8, SD=6.9)이 대안학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교별 자아정체감 차이

자아정체감	일반학교 (N=56)		대안학교 (N=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정성	35.1	5.0	32.3	6.5	1.74
목표지향성	36.0	6.1	37.2	6.9	-0.7
자기존재의 독특성	33.8	4.0	33.3	3.4	0.4
대인관계 역활의지	32.4	5.5	30.7	5.6	1.0
자기수용	35.8	6.9	31.2	4.9	2.3*
자기주장	33.8	6.1	31.2	4.9	-0.2
자아정체감	206.9	25.0	198.8	21.4	1.1

*p<.05

7) 요약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국가 소속감, 미래 모습, 희망 직업, 미래 희망, 혼혈인에 대한 인식,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외모가 한국인과 유사할수록 본인 및 타인이 이들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 외모로 인하여 국가 소속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소속된 환경 즉 어떠한 문화를 가까이 접하느냐도 국가소속감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학교에 다니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자신과 같이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드물고, 한국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반면,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은 수업장면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두 가지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이란 소속감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은 다수(71.4%)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인식하였고 희망적인 미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자신들의 노력과 역활 여하에 따라 희망된 미래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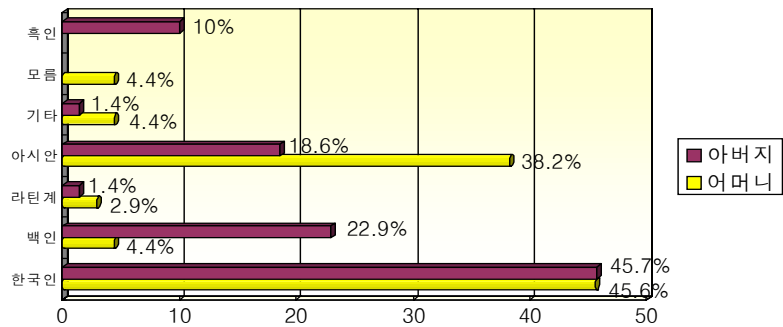
가정청소년 66.7%가 ‘학교 및 기술 교육 지원’이라고 대답하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래 혼혈인에 보이는 사회적 관심에 대하여 일반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일시적인 관심이라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 혼혈인 문제를 잘 알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청소년 대다수가 ‘실제 문제는 모르고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지각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수용 측면에서 일반학교 학생이 대안학교 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에 대한 인식

1) 부모

과거 다문화가정을 이루었던 부모의 인종과 현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부모 인종 유형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인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어머니 45.6%가 ‘한국인’, 38.2%가 ‘아시안’ 순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백인’이 4.4%, ‘라틴계’가 2.9%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경우 아시아 문화권 인종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경우, ‘한국인 45.7%’, ‘백인 22.9%’, ‘아시안 18.6%’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어머니가 아시안 계통이 많은 반면, 아버지의 경우, 한국인 다음을 백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인종 유형 분포가 어머니의 인종 유형 분포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부모 인종유형

<표 19> 부모 인종유형

항목	아버지	어머니
한국인	32(45.7)	31(45.6)
백인	16(22.9)	3(4.4)
흑인	7(10.0)	-
라틴계	1(1.4)	2(2.9)
아시아인	13(18.6)	26(38.2)
기타	1(1.4)	3(4.4)
모름	-	3(4.4)
계	70(100.0)	68(100.0)
χ^2	58.571***	79.176***

***p<.001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부모의 학력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아버지 27.5%가 ‘고등학교 졸업’, 49.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어머니 32.9%가 ‘고등학교 졸업’, 34.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청소년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0> 부모의 학력

항목	아버지	어머니
무학	-	1(1.4)
초등학교 졸업	1(1.4)	1(1.4)
중학교 졸업	4(5.8)	3(4.3)
고등학교 졸업	19(27.5)	23(32.9)
대학교 졸업이상	34(49.3)	24(34.3)
알지 못함	11(15.9)	18(25.7)
계	69(100.0)	70(100.0)
χ^2	50.928***	53.429***

***p<.001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부모 직업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아버지들은 40.0%가 ‘사무직’, 10.0%가 ‘전문직’, 10%가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어머니의 경우, 50.0%가 ‘가정주부’, 17.1%가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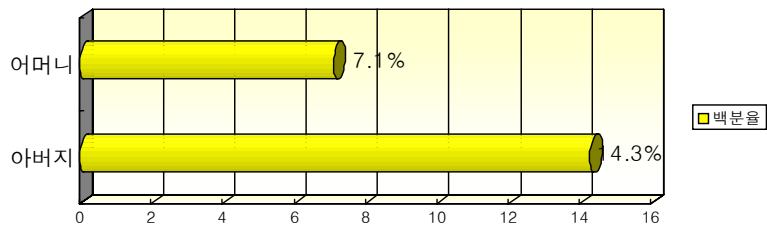
<표 21> 부모의 직업

항목	아버지	어머니
사무직	28(40.0)	12(17.1)
전문직	7(10.0)	2(2.9)
군인	7(10.0)	-
공장 및 건설노동자	6(8.6)	-
자영업	6(8.6)	6(8.6)
야간업소 관련일	-	-
연예인	-	-
종교인	-	2(2.9)
가정주부	-	35(50.0)
기타	11(15.7)	9(2.9)
알지 못함	5(7.1)	4(5.7)
계	70(100.0)	70(100.0)
χ^2	81.000***	40.000***

***p<.001

2) 가정 환경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의 14.3%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며, 7.1%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8.6%, 28.9%로 나타났다.



<그림 8> 부모 부재

<표 22> 동거인 : 복수응답

항목	예	아니오	계	명(%)
아버지	60(85.7)	10(14.3)	70(100.0)	35.714***
어머니	65(92.9)	5(7.1)	70(100.0)	51.429***
누나/여동생	27(38.6)	43(61.4)	70(100.0)	3.657
형/남동생	37(52.9)	33(47.1)	70(100.0)	0.229
할아버지	13(18.6)	57(81.4)	70(100.0)	27.657***
할머니	20(28.9)	50(71.4)	70(100.0)	12.857***
삼촌/이모	4(5.7)	66(94.3)	70(100.0)	54.914***

***p<.001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가족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 형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의 62.9%가 ‘보통이다’, 18.6%가 ‘어려운 편이다’, 14.3%가 ‘잘 산다’ 라고 답하였으며 최저생계 유지비를 받는 경우는 7.1%로 나타났다.

<표 23> 가정 형편

항목	명(%)	χ^2
매우 어렵다	2(2.9)	87.385***
어려운 편이다	13(18.6)	
보통이다	44(62.9)	
잘 산다	10(14.3)	
매우 잘 산다	1(1.4)	
계	70(100.0)	

***p<.001

3) 요약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부모의 인종 유형의 경우 아시안이 가장 많았고 백인, 흑인, 라틴 등 다양한 유형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인 및 흑인의 부모와는 달리 점차 아시안 혼혈이 증가는 혼혈 1세대와 2세대의 특징과는 달리 혼혈 3세대의 인종 유형의 특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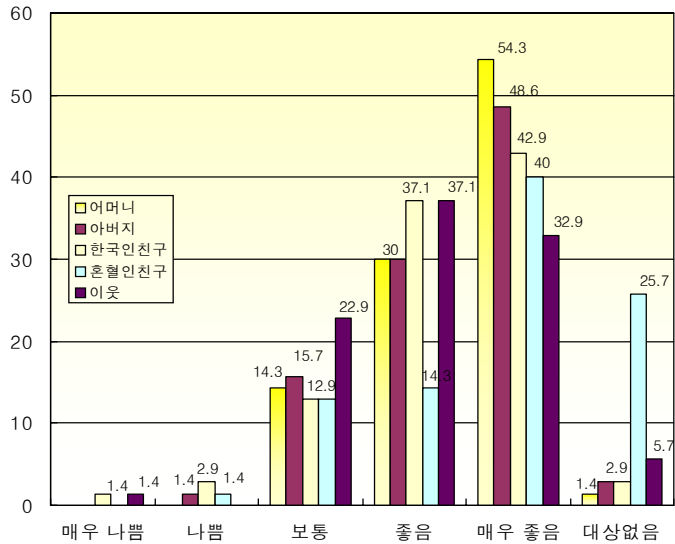
부모의 학력 수준도 고졸 이상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의 직업도 사무직, 가정주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1, 2 혼혈세대들의 낮은 학력과 비교될 수 있으며 부모의 직업도 유흥업소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무직만이 아닌 안정적이며 근무환경이 양호한 직업에 종사함을 보여주고 있어 혼혈 3세대의 다양한 가정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3. 사회에 대한 인식

1) 주변사람과의 관계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 한국인 친구, 혼혈인 친구, 이웃과 관계 정도에 대해

여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54.3%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30.0%가 ‘관계가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와 관계에 대하여 48.6%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30.0%가 ‘관계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42.9%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37.1%가 ‘관계가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혼혈인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40.0%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25.7%가 ‘대상 없음’이라고 대답하여 혼혈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변에 본인과 같은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웃과의 관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다문화가정청소년 37.1%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32.9%가 ‘관계가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림 9>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표 24>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항목	명(%)						X ²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이다	관계가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계가 좋은 편이다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대상 없음	
어머니	-	-	10(14.3)	21(30.0)	38(54.3)	1(1.4)	43.486***
아버지	-	1(1.4)	11(15.7)	21(30.0)	34(48.6)	2(2.9)	55.855***
한국인 친구	1(1.4)	2(2.9)	9(12.9)	26(37.1)	30(42.9)	2(2.9)	72.800***
혼혈인 친구	-	1(1.4)	9(12.9)	10(14.3)	28(40.0)	18(25.7)	31.727***
이웃	1(1.4)	-	16(22.9)	26(37.1)	23(32.9)	4(5.7)	35.571***

***p<.001

다문화가정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 집단의 한국인 친구관계 양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M=4.38, SD=0.776)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M=3.36, SD=1.027)보다 한국인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보고 되었다. 이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보다 한국인 친구들을 접하고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 25> 학교별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친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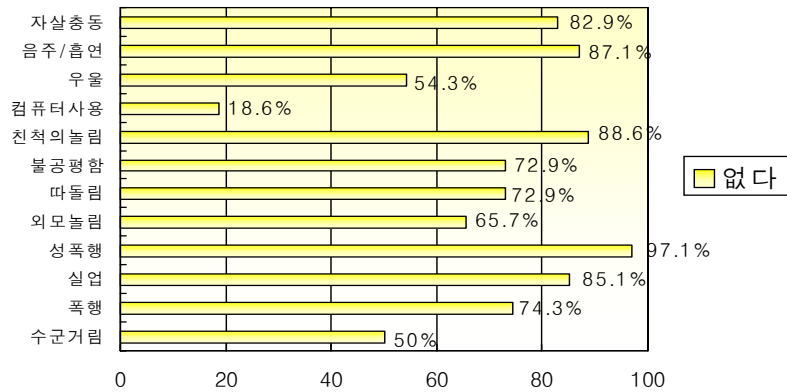
항목	일반학교 (N=56)		대안학교 (N=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친구와 관계	4.38	0.776	3.36	1.027	3.741***
혼혈친구와 관계	4.26	0.950	4.62	0.506	-1.287

***p<.001

2) 문제 관련 경험

다문화가정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 관련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4

가지 영역의 12문항의 질문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문제 관련 경험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문제 관련 경험

<표 26> 문제 관련 경험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혀 그렇지 않다	35 (50.0)	52 (74.3)	57 (85.1)	68 (97.1)	46 (65.7)	51 (72.9)	51 (72.9)	62 (88.6)	13 (18.6)	38 (54.3)	61 (87.1)	58 (8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 (14.3)	8 (11.4)	9 (13.4)	2 (2.9)	13 (18.6)	8 (11.4)	13 (18.6)	4 (5.7)	14 (20.0)	11 (15.7)	6 (8.6)	3 (4.3)
보통이다	18 (25.7)	9 (12.9)	1 (0.5)	0 (0.0)	9 (12.9)	5 (7.1)	3 (4.3)	1 (1.4)	24 (34.3)	10 (14.3)	3 (4.3)	8 (11.4)
그런 편이다	7 (10.0)	1 (1.4)	0 (0.0)	0 (0.0)	2 (2.9)	4 (5.7)	1 (1.4)	2 (2.9)	13 (18.6)	10 (14.3)	0 (0.0)	1 (1.4)
매우 그런 편이다	0 (0.0)	0 (0.0)	0 (0.0)	0 (0.0)	0 (0.0)	2 (2.9)	2 (2.9)	0 (0.0)	6 (8.6)	0 (0.0)	0 (0.0)	0 (0.0)
무응답	0 (0.0)	0 (0.0)	3 (4.3)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1 (0.5)	0 (0.0)	0 (0.0)
계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χ^2	27.029***	92.857***	82.149***	62.229***	65.429***	123.571***	28.857***	155.058***	11.857*	33.319***	91.400***	126.457***

***p<.001, *p<.05

- ①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 ②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
- ③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 등)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 ④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 ⑤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 ⑥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 ⑦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 ⑧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 ⑨ 컴퓨터 사용(인터넷, 채팅, 게임)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
- ⑩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 ⑪ 스트레스로 담배나 술을 마신다
- ⑫ 자살 충동을 느낀다

(1) 사회적 차별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번, ③번, ⑦번과 같은 질문을 실시하였다.

첫째,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라는 질문에 대해 다문화가정청소년 중 5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25.7%가 ‘보통이다’, 14.3%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0%가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다문화가정청소년의 50.0%가 타인의 시선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 등)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85.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문 구성에 있어, 대상 청소년들이 구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구직 경험 자체가 없는 것인지, 구직 경험시 차별을 받지 않은 것인지 다소 불확실하다.

셋째,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72.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2.9%의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 다수의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불공평한 대우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21.1%의 청소년들이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차별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외모에 대한 놀림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하여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⑤번, ⑥번, ⑧번과 같은 질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65.7%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2.9%가 ‘그런 편이다’, 12.9%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분석 결과, 34.3%의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외모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놀림당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72.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2.9%가 ‘매우 그렇다’, 5.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의 21.1%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88.6%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2.9%가 ‘그런 편이다’, 1.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보다는 적으나 가정이나 친척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받은 경우가 10.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폭행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②번,

④번과 같은 질문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74.3%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1.4%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수의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으나, 경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6.7%의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욕설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97.1%가 ‘전혀 그렇지 않다’, 2.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4) 심리·정신적 문제

다문화가정청소년들 심리·정신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⑨번, ⑩번, ⑪번, ⑫번과 같은 질문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컴퓨터 사용, 즉 인터넷, 채팅, 게임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8.6%가 ‘매우 그런 편이다’, 18.6%가 ‘그런 편이다’, 34.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14.3%가 ‘그런 편이다’, 14.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절반 가량의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트레스로 담배나 술을 마신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87.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4.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 1.4%가 ‘그런 편이다’, 11.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82.9%를 나타내었다.

(5) 학교형태별 문제경험 차이

다문화가정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외모에 대한 놀림, 폭행, 심리·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차별의 영역에 속하는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라는 문항을 통해 일반학교 청소년보다 대안학교 청소년($M=2.54$, $SD=0.97$)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폭행의 영역에 속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통해 일반학교 청소년에서는 전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경험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대안학교 청소년($M=1.15$, $SD=0.38$)에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경험이 일반학교 청소년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심리·정신적 문제 영역 중에서 ‘컴퓨터 사용 즉, 인터넷, 채팅, 게임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학교 청소년과 대안학교 청소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 일반학교 청소년보다 대안학교 청소년($M=3.54$, $SD=1.33$)의 컴퓨터 사용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간의 문제경험 차이검증

문제경험	일반학교 (N=56)		대안학교 (N=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1.19	1.04	2.54	0.97	2.381*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	1.38	0.73	1.62	0.96	1.008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1.21	0.45	1.00	0.00	1.639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00	0.00	1.15	0.38	3.144**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1.45	0.83	1.92	0.76	1.894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1.46	1.04	1.92	1.04	1.429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36	0.86	1.77	0.93	1.532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1.22	0.66	1.00	0.00	1.189
컴퓨터 사용(인터넷, 채팅, 게임 등)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	2.59	1.11	3.54	1.33	2.678**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1.82	1.11	2.08	1.26	0.739
스트레스로 담배나 술을 마신다.	1.13	0.38	1.23	0.60	0.798
자살 충동을 느낀다.	1.29	0.68	1.46	0.97	0.772

* $p<.05$, ** $p<.01$

(6) 차별경험에 대한 대응

사회적 차별의 경험 정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32.9%가 ‘차별받은 적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차별경험에 대해 22.9%가 ‘무시한다’, 18.6%가 ‘참는다’, 11.4%가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8.6%가 바로 ‘항의한다’, 5.7%가 ‘폭력을 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다수가 차별을 받을 때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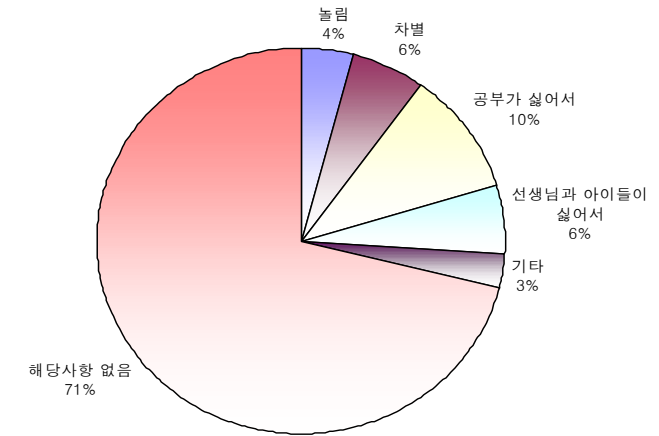
<표 28> 차별이나 불합리한 경험에 대한 대응방법

항목	명(%)	χ^2
참는다	13(18.6)	21.714***
바로 항의한다	6(8.6)	
무시한다	16(22.9)	
폭력을 쓴다	4(5.7)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표현한다	8(11.4)	
차별받은 적 없다	23(32.9)	
계	70(100.0)	

***p<.001

3) 학업 중단 충동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 중단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71.0%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나 10.1%가 ‘공부가 싫어서’, 5.8%가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5.8%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싫어서’, 4.3%가 ‘놀림 받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학교 중단 충동의 이유

<표 29> 학교 중단 충동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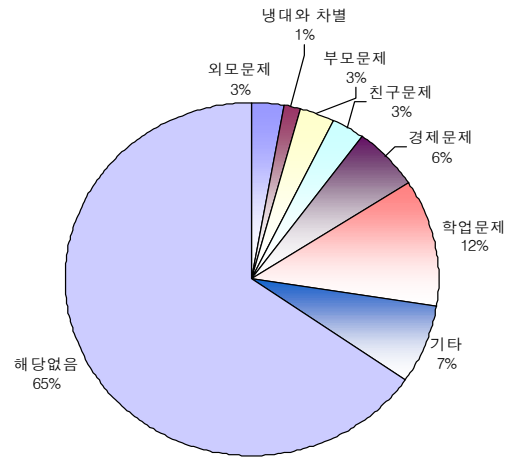
항목	명(%)	χ^2
놀림 받기 때문에	3(4.3)	147.957***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4(5.8)	
공부가 싫어서	7(10.1)	
선생님과 아이들이 싫어서	4(5.8)	
기타	2(2.9)	
해당사항 없음	49(71.0)	
계	69(100.0)	

***p<.001

4) 생활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

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65.2%가 현재 생활에 만족함으로 이유를 선택할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대답하였으나 11.6% 학업 문제, 5.8% 경제적 어려움, 2.9% 외모 문제, 2.9% 부모님의 문제, 2.9% 친구 문제, 1.4% 사회적 냉대와 차별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2> 현재 생활에 불만족 이유

<표 30> 현재 생활에 불만족 이유

항목	명(%)	χ^2
외모 문제	2(2.9)	179.464***
사회적 냉대와 차별	1(1.4)	
부모님의 문제	2(2.9)	
친구문제	2(2.9)	
경제적 어려움	4(5.8)	
학업문제	8(11.6)	
기타	5(7.2)	
만족하므로 해당 없음	45(65.2)	
계	69(100.0)	

***p<.001

5) 이민

다문화가정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 집단의 이민에 대한 욕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청소년의 51.8%가 ‘이민을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71.4%가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속 학교에 따라 이민 희망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이민 희망 여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코시안 청소년과 비코시안 청소년 두 집단의 이민 욕구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비코시안 청소년 50.0%가 ‘이민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비코시안 청소년 42.9%가 ‘이민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1> 이민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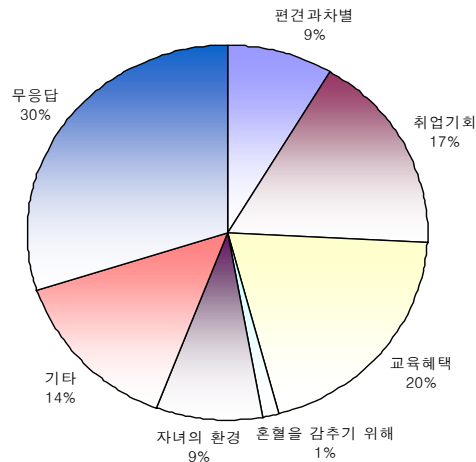
항목	일반학교	대안학교	계	χ^2
예	11(19.6)	10(71.4)	21(30.0)	14.387***
아니오	29(51.8)	3(21.4)	32(45.7)	
잘 모르겠다	16(28.6)	1(7.1)	17(24.3)	

***p<.001

<표 32> 모(母)가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인 청소년의 이민 희망 여부

항목	아시아인	비아시아인	계	χ^2
예	3(11.5)	18(42.9)	21(30.9)	9.269**
아니오	13(50.0)	18(42.9)	31(45.6)	
잘 모르겠다	10(38.5)	6(14.3)	16(23.5)	

**p<.01



<그림 13> 이민 희망 이유

<표 33> 이민 희망 이유

항목	명(%)	χ^2
사회의 편견과 차별	6(8.6)	13.816*
취업의 기회	12(17.1)	
교육의 혜택	14(20.0)	
혼혈인을 감추고 싶어서	1(1.4)	
자녀를 기르기 좋은 환경 때문	6(8.6)	
기타	10(14.3)	
무응답	21(30.0)	
계	70(100.0)	

*p<.05

다문화가정청소년에게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혼혈인임을 감추고 싶어서 이민을 원하는 경우(1.4%)보다 교육의 혜택(20.0%) 및 취업의 기회(17.1%)를 위하여 이민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요약

이상으로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려와는 달리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주변관계(부모, 혼혈 및 한국인 친구, 이웃 등)는 좋은 편이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중이어서 한국인 친구를 자주 접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는 경우 관계가 좀더 좋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차별, 외모에 대한 놀림, 폭행, 심리·정신적 문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 영역별 문제의 심각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경험을 일반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변인들(혼혈유형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변인에 따른 문제 경험 결과는 심층분석에서 다루었다. 생활 만족도의 경우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민에 대해서는 혼혈 유형이 아시안보다 비아시안 청소년이 이민을 보다 희망하였다. 이민 희망 이유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나 ‘혼혈인을 감추고 싶어서’라는 부정적인 이유보다는 ‘교육 혜택과 취업 기회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는 다르게 3세대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에 등을 돌리는 모습보다 현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심층분석

다문화가정청소년을 혼혈유형과 가정형편 수준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 집단 간에 심리사회적, 가족문화별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혼혈유형은 백인계와 흑인계, 아시안으로 구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가정형편은 피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1. 혼혈유형에 따른 심층분석

혼혈유형을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계로 구분하고 각 집단간에 국가소속감,

가정과 주변사람과의 관계, 문제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1) 국가소속감

(1) 자가지각

혼혈유형에 따라 국가 소속감을 느끼는 자가지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chi^2=16.901$, $p<.01$)가 있었다. 흑인계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없었던 반면, 외국인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37.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또한 백인계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생각하는 것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아시안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51.4%로 가장 많아, 피부색에 따라 국가 소속감을 지각하는 차이가 있었다.

<표 34> 혼혈유형에 따른 국가 소속감에 대한 자가지각

항목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	χ^2
한국인	2(11.8)	-	19(51.4)	16.901**
외국인	3(17.6)	3(37.5)	4(10.8)	
한국인 외국인 모두	12(70.6)	5(62.5)	12(32.4)	
한국인 외국인 모두 아님	-	-	-	
기타	-	-	2(5.4)	
계	17(100.0)	8(100.0)	37(100.0)	

** $p<.01$

(2) 타인지각

타인이 보는 자신의 국가 소속감에 대해서도 각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28.312$, $p<.001$), 아시안 혼혈의 경우 타인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지각한다 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63.2%), 백인계와 흑인계 혼혈의 경우 자신을 외국인으로 본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백인계 35.3%, 흑인계 65.5%).

<표 35> 혼혈유형에 따른 국가 소속감의 타인지각

항목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	χ^2
한국인	5(29.4)	-	24(63.2)	28.312***
외국인	6(35.3)	5(62.5)	-	
한국인 외국인 모두	5(29.4)	3(37.5)	11(28.9)	
한국인 외국인 모두 아님	1(5.9)	-	1(2.6)	
기타	-	-	2(5.3)	
계	17(100.0)	8(100.0)	38(100.0)	

*** $p<.001$

(3) 이민에 대한 생각

각 혼혈유형에 따라 이민에 대한 생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chi^2=27.870$, $p<.001$)를 보였는데, 흑인계 혼혈의 경우 전원 모두 ‘이민가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백인계 혼혈의 경우 아시안 혼혈에 비해 ‘이민가고 싶다’는 비율이 41.2%로 높았지만, ‘이민가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흑인계 혼혈에 비해 높았다.

<표 36> 혼혈유형에 따른 이민에 대한 생각

항목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	χ^2
이민가고 싶다	7(41.2)	8(100.0)	4(10.5)	27.870***
이민가고 싶지 않다	8(47.1)	-	20(52.6)	
잘 모르겠다	2(11.8)	-	14(36.8)	
계	17(100.0)	8(100.0)	38(100.0)	

2) 혼혈유형에 따른 가족사항 및 관계

(1) 혼혈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

혼혈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26.132$, $p<.01$), 백인계 혼혈, 흑인계 혼혈이, 아시안 혼혈에 비해 군인

직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백인계 29.4%, 흑인계, 25%, 아시안 0%). 또한 백인계와, 흑인계 혼혈의 아버지의 전문직(의사, 교사) 비율이 아시안에 비해 높게(백인계 17.6%, 흑인계 25.0%, 아시안 5.3%) 나타난 반면, 아시안은 공장 및 건설 노동자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백인계 5.9%, 흑인계 0%, 아시안 10.5%).

(2) 혼혈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직업

혼혈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직업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4.050$, $p<.05$). 흑인계 혼혈의 경우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비율(12.5%)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아 직업을 가진 흑인계 혼혈의 어머니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7> 혼혈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직업

항목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계	χ^2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2(11.8)	1(12.5)	8(21.1)	24.050*
전문직	-	-	2(5.3)	
자영업(상업)	3(17.6)	2(25.0)	-	
종교인	-	-	2(5.3)	
가정주부	8(47.1)	1(12.5)	21(55.3)	
기타	1(5.9)	3(37.5)	5(13.2)	
알지못함	3(17.6)	1(12.5)	-	
계	17(100.0)	8(100.0)	38(100.0)	

* $p<.05$

<표 38> 아버지의 직업

항목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	χ^2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7(41.2)	3(37.5)	14(36.8)	26.132**
전문직(의사, 교사 등)	3(17.6)	2(25.0)	2(5.3)	
군인	5(29.4)	2(25.0)	-	
공장 및 건설노동자	1(5.9)	-	4(10.5)	
자영업(상점경영)	-	-	6(15.8)	
야간업소 관련일	-	-	-	
연예인	-	-	-	
종교인	-	-	-	
가정주부	-	-	-	
기타	-	-	10(26.3)	
알지못함	1(5.9)	1(12.5)	2(5.3)	
계	17(100.0)	8(100.0)	38(100.0)	

** $p<.01$

(3) 주변사람과의 관계

혼혈유형에 따라 ‘어머니’, ‘아버지’, ‘혼혈인 친구’, ‘한국인 친구’, ‘이웃 간’에 느끼는 관계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각 혼혈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흑인계 혼혈이 백인계 혼혈과 아시안 혼혈에 비해 관계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F_{(2, 58)}=6.635$, $p<.05$, 흑인계 평균 3.63, 백인계 평균 4.50, 아시안 평균 4.58).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각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F_{(2, 58)}=11.801$, $p<.001$), Scheffe 사후검증결과 아시안 혼혈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안 평균 4.55. 백인계 평균 3.69, 흑인계 평균 3.29).

주변사람과의 관계 정도를 고려할 때, 아시안 혼혈이 다른 혼혈 유형에 비

해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이며, 흑인계 혼혈의 경우 어머니와의 친밀감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아 주변사람과의 관계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9> 혼혈유형 따른 주변사람과의 관계 기술치

항목	혼혈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와의 관계	백인계	16	4.50	0.63
	흑인계	8	3.63	0.74
	아시안	38	4.58	0.68
	전체	62	4.44	0.74
아버지와의 관계	백인계	15	4.40	0.74
	흑인계	7	3.86	0.90
	아시안	38	4.34	0.85
	전체	60	4.30	0.83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백인계	16	3.69	1.14
	흑인계	7	3.29	0.76
	아시안	38	4.55	0.60
	전체	61	4.18	0.92
혼혈인 친구와의 관계	백인계	12	4.50	0.80
	흑인계	8	4.13	0.84
	아시안	24	4.46	0.83
	전체	44	4.41	0.82
이웃과의 관계	백인계	15	4.13	0.74
	흑인계	6	3.33	1.37
	아시안	38	4.13	0.81
	전체	59	4.05	0.88

<표 40> 혼혈유형에 따른 주변사람과의 관계 변량분석

항목	변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후검증
어머니	집단간	6.104	2	3.052	6.635**	A, C>B
	집단내	27.138	59	0.460		
	전체	33.242	61			
아버지	집단간	1.590	2	0.795	1.162	
	집단내	39.010	57	0.684		
	전체	40.600	59			
한국인 친구	집단간	14.756	2	7.378	11.801***	C>A, C
	집단내	36.261	58	0.625		
	전체	51.016	60			
혼혈인 친구	집단간	0.803	2	0.402	0.591	
	집단내	27.833	41	0.679		
	전체	28.636	43			
이웃	집단간	3.439	2	1.719	2.325	
	집단내	41.409	56	0.739		
	전체	44.847	58			

*p<.05, ***p<.001, A(백인), B(흑인), C(아시안)

3) 혼혈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 경험

혼혈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 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림’, ‘외모에 대한 놀림’,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 문제경험에서 혼혈유형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림’ 문제 경험은 백인계 혼혈과, 흑인계 혼혈 집단이 아시안 혼혈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백인계 평균 2.71, 흑인계 평균 2.88, 아시안 평균, 1.50).

‘외모에 대한 놀림’ 문제 경험은 백인계 혼혈이 아시안 혼혈에 비해 유의미하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인계 평균 2.12, 아시안 평균 1.26).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 문제 경험에서는 흑인계 혼혈이 아시안 혼혈에 비해 컴퓨터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흑인계 평균 3.50, 아시안 평균 2.37).

문제 경험을 볼 때 외모가 눈에 띄는 백인계와 흑인계 혼혈이 비교적 눈에 덜 띄는 아시안 혼혈 보다 문제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혼혈유형에 따른 문제경험 평균 및 표준편차

항목	혼혈유형	N	평균	표준편차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백인계	17	2.71	1.05
	흑인계	8	2.88	0.99
	아시안	38	1.50	0.86
	전체	63	2.00	1.11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백인계	17	2.12	0.99
	흑인계	8	1.50	0.54
	아시안	38	1.26	0.69
	전체	63	1.52	0.84
컴퓨터 사용(인터넷, 채팅, 게임 등)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	백인계	17	3.18	1.33
	흑인계	8	3.50	0.76
	아시안	38	2.37	1.13
	전체	63	2.73	1.22

<표 42> 혼혈유형에 따른 문제경험 차이 변량분석 결과

문제경험	변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후검증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집단간	24.096	2	12.048	13.927***	A, B>C
	집단내	51.904	60	0.865		
	전체	76.000	62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집단간	8.581	2	4.291	7.327***	A>C
	집단내	35.133	60	0.586		
	전체	43.714	62			
컴퓨터 사용(인터넷, 채팅, 게임 등)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	집단간	13.100	2	6.550	4.955**	B>C
	집단내	79.313	60	1.322		
	전체	92.413	62			

*p<.05, ***p<.001, A(백인계), B(흑인계), C(아시안)

4) 혼혈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백인계, 흑인계, 아시안계 혼혈 유형에 따라 국가소속감을 지각하는 면에 차이를 보였다. 외모면에서 눈에 띄는 백인계, 흑인계 혼혈이 아시안계 혼혈에 비해 자신을 외국인으로 지각하는 면이 컸으며, 이민에 대한 생각도 아시안 계 혼혈에 비해 적극적이었다.

혼혈유형에 따라 부모의 직업 분포에 차이를 가졌는데, 흑인계 혼혈인 경우 어머니가 다른 집단에 비해 직장 여성 비율이 많았다. 부의 경우 대부분 사무직이 많았으며, 백인계 혼혈의 경우 아시안에 비해 전문직과 군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변사람과의 관계 면에서 흑인계 혼혈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 면에서 친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면에서 아시안이 다른 집단에 비해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험에서 혼혈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변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백인계와 흑인계가 아시안 혼혈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가졌다. 외모에 대한 놀림은 백인계 혼혈이 아시안에 비해 놀림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사용에서 흑인계 혼혈이 아시안 혼혈에 비해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모 면에서 눈에 띄는 혼혈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주변사람과의 친밀감이 낮고 사회적인 문제 경험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아시안 계 혼혈의 경우 비교적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형편에 따른 심층분석

1) 가정형편에 따른 가족사항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가정형편을 상, 중, 하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따른 한부모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정의 가정형편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중’이상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 한부모가정의 다문화가정청소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가정형편에 따른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명(%)				
항목	상	중	하	χ^2
한부모가정	1(9.1)	6(13.6)	7(46.7)	8.598***
양부모가정	10(90.9)	38(86.4)	8(53.3)	
계(%)	11(100.0)	44(100.0)	15(100.0)	

***p<.001

2) 가정형편에 따른 부모의 직업 차이

다문화가정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어머니가 직업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 수준이 ‘상’인 경우 모가 가정주부인 경우가 54.5%, ‘중’인 경우 56.8%로 나타난 반면, 가정형편 수준이 ‘하’인 경우 모가 가정주부인 경우가 2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 가정형편에 따른 어머니의 직업

명(%)				
항목	상	중	하	χ^2
사무직	1(9.1)	9(20.5)	2(13.3)	21.400*
전문직	-	-	2(13.3)	
군인	-	-	-	
공장 및 건설노동자	-	-	-	
자영업	3(27.3)	1(2.3)	2(13.3)	
야간업소 관련일	-	-	-	
연예인	-	-	-	
종교인	-	2(4.5)	-	
가정주부	6(54.5)	25(56.8)	4(26.7)	
기타	1(9.1)	5(11.4)	3(20.0)	
알지 못함	-	2(4.5)	2(13.3)	
계	11(100.0)	44(100.0)	15(100.0)	

*p<.05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형편에 따라 부의 직업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형편이 ‘상’과 ‘중’인 경우 부의 직업이 사무직이 많은 반면, ‘하’인 가정은 사무직 보다는 ‘군인’(26.7%)과 아버지의 직업을 모른다는 응답(26.7%)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표 45> 가정형편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

명(%)				
항목	상	중	하	χ^2
사무직	5(45.5)	21(47.7)	2(13.3)	26.428**
전문직	3(27.3)	2(4.5)	2(13.3)	
군인	-	3(6.8)	4(26.7)	
공장 및 건설노동자	1(9.1)	4(9.1)	1(6.7)	
자영업	1(9.1)	5(11.4)	-	
야간업소 관련일	-	-	-	
연예인	-	-	-	
종교인	-	-	-	
가정주부	-	-	-	
기타	1(9.1)	8(18.2)	2(13.3)	
알지 못함	-	1(2.3)	4(26.7)	
계	11(100.0)	44(100.0)	15(100.0)	

**p<.01

3) 문제경험

다문화가정의 가정형편 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지는 문제경험에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의 문제 경험에서 가정형편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F_{(2, 67)}=4.412$, $p<.05$)를 보였다. 즉,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중’인 집단에 비해 길거리에서 수군거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에서도 가정형편 수준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F_{(2, 67)}=3.534$, $p<.05$)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하’인 집단이 ‘중’인 집단에 비해 타인의 폭행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형편 수준에 따라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F_{(2, 64)}=13.530$, $p<.001$)가 나타났다. 가정형편 수준이 ‘하’인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관한 놀림에서도 가정형편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_{(2, 67)}=4.589$, $p<.05$)가 있었는데, ‘하’인 집단이 ‘중’인 집단에 비해 놀림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과 무력감 경험은 가정형편의 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_{(2, 66)}=14.679$, $p<.001$)를 보였으며, ‘하’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울과 무력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가정형편에 따른 문제경험 기술치

항목	가정형편	N	평균	표준편차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상	11	2.27	1.27
	중	44	1.68	0.96
	하	15	2.53	1.06
	전체	70	1.96	1.08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	상	11	1.27	0.47
	중	44	1.30	0.73
	하	15	1.87	0.92
	전체	70	1.41	0.77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상	11	1.00	0.00
	중	43	1.07	0.26
	하	13	1.62	0.65
	전체	67	1.16	0.41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상	11	1.73	0.91
	중	44	1.32	0.60
	하	15	2.00	1.13
	전체	70	1.53	0.83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상	11	1.55	0.93
	중	43	1.56	0.93
	하	15	3.07	1.03
	전체	69	1.88	1.13

<표 47> 가정형편에 따른 문제경험 차이 변량분석 결과

문제경험	변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후검증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집단간	9.411	2	4.705	4.412*	C>B
	집단내	71.461	67	1.067		
	전체	80.871	69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	집단간	3.911	2	1.956	3.534*	C>B
	집단내	37.074	67	0.553		
	전체	40.986	69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자 리를 구할 수 없었다.	집단간	3.326	2	1.663	13.530***	C>A, B
	집단내	7.868	64	0.123		
	전체	11.194	66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집단간	5.716	2	2.858	4.589*	C>B
	집단내	41.727	67	0.623		
	전체	47.443	69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집단간	26.807	2	13.404	14.679***	C>A, B
	집단내	60.265	66	0.913		
	전체	87.072	69			

가정형편에 따른 사회적 문제경험에서 다섯 가지 문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인 가정에서 ‘중’인 가정에 비해 길거리에서 시선을 받는 경우와 주위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인 가정이 ‘중’인 가정에 비해 외모에 대한 놀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형편이 ‘하’인 가정은 ‘상’과 ‘중’ 가정에 비해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무력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혼혈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혼혈세대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상기할 때, 현재 혼혈 청소년 세대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4) 가정형편에 따른 다문화가정청소년 심층 분석 종합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가정형편을 ‘상’, ‘중’, ‘하’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때, 가정형편이 ‘하’인 가정에서 혼혈문화가정 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01$, A(상), B(중), C(하)

부모의 직업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가 전업주부 대신 직장여성이 많았고, 아버지 직업의 경우, 형편이 좋은 가정에서 ‘사무직’과 ‘전문직’ 직업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버지 직업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군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토론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현실과 대안

배 기 철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회장

토론

한국문화와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

한국문화와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 론

한국 내 혼혈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일상 의식 속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특별히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개인의 특별한 관심이 있을 경우에만 혼혈인의 차별문제는 잠시 의식 수면위로 떠오른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혼혈인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접촉의 빈도의 빈곤은 일상의 무관심을 만들어 낸다. 그들이 받는 차별이나 불이익은 우리와 상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설혹 그들을 접촉할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취급한다. 한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원주민 이야기나 진배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다만 신기할 뿐이다. 우리 의식 속에서 혼혈인은 우리와 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약간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과 문화가 전혀 다른 외지 사람, 그중에서도 관심의 밖의 아프리카 원주민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최근 한국에서 혼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최고 스포츠 축제라는 슈퍼볼에서 한국계 혼혈 선수인 하인스 워드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들은 혼혈에 대해 적으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정부차원에서도 혼혈인의 병역문제 논의까지 확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들의 혼혈인에 대한 관심은 스타에 대한 관심일

뿐이고 혼혈인의 병역문제는 하인스 워드로 인해 불고 있는 혼혈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이지 자생적인 혼혈문제에 대한 성찰은 아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혼혈인의 이야기는 혼혈인 자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다만 혼혈인이 특별한 사건에 연류 되어야 비로서 관심거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도 특별한 사건이 중심이 되고 혼혈은 단지 사건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혼혈인의 문제의 성찰을 떠나서 하인스 워드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문화의 혼혈인 배타적 성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했다면 지금 그가 이런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필자는 분명히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인스 워드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혼혈인에 대해 관대한 미국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도 조금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은 흑인으로 취급 되어 차별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유색인과의 혼혈인도 많은 적든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관대한 수준의 차별에 불과 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혼혈인에 대해 더욱 차별적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에서 그 연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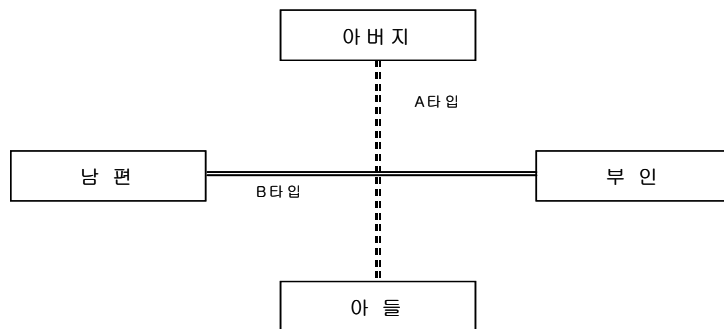
한국의 가족의 중심축과 혼혈인의 문제

한국에서는 세계 제 2차 대전 후 한국에 주둔하는 백인, 흑인 병사 및 그 밖의 일로 장기 체재하고 있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사이에 상당수의 혼혈아가 생겼다.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점은 혼혈인의 발생시기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이 혼혈인을 생산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 남성 한국 여성의 결합은 태생적으로 한국가족체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혼혈인에 대한 과도한 배척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떠한 이유가 외국 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합이 왜 한국의 가족의 중심축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배척과 천시가 동반 되는 것일까? 해답은 저명한 문화 심리학자인 프란시스 휴(Francis L. K. Hsu)의 친족체계와 삶의 방식의 차이라는 이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화 심리학자인 프란시스 휴는 가족 관계가 한 문화의 인간행동의 기본적 틀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특히 가족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타입이 어떤가에 따라 문화의 핵심가치와 문화적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론적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가족 관계 형태는 다르다는데 동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차이는 개인의 상호작용 양식의 차이에 상당부분을 설명한다.

휴에 따르면 가족 내부의 관계는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 등 총 4가지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 여러 가지 관계 중 어떤 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는냐에 따라 문화의 가치가 결정되고, 개인은 그 가치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휴의 분류에 따르면 부자관계 중심과 부부관계 중심이 되는 두 가지 타입의 가족체계가 가장 보편적 나타난다. 간혹 인도처럼 모자관계축이 중심이 되거나, 형제관계가 가족체계의 중심이 되는 아프리카 남부지역도 존재하지만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기본 가족 관계는 부자 관계가 중심이 되는 A타입 가족체계와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는 B타입 가족체계다.



<그림 1> A타입, B타입 친족체계

한국의 경우는 부자관계축이 가족의 중심이 되는 A타입 문화의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도를 제외한 동양의 대부분 국가들이 부자관계축이 핵심이 되는 A타입 문화권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부자관계 축을 강조하기 위해 연속성, 서열성, 관계성, 포괄성이 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기본이 되는 B타입 문화의 전형이다. 이러한 B타입 문화에서는 A타입 문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단절성, 평등성이 강조 된다. 이 두 타입의 문화 비교를 통해 혼혈인의 문제를 접근해 보면 현재 한국에서 혼혈인이 미국 등 서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배척을 받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첫째로 부자관계축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특징인 연속성의 경우 조상과 자손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개인은 조상과 자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조상과 자손의 연속성은 부자관계 축의 강조로 인해 어머니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씨”로 보장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합으로 인해 생성된 혼혈인은 “씨”의 정통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이질적인 생명으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문화 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반대로 “씨”의 연속성을 확보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합으로 인한 혼혈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혼혈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씨”의 정통성을 확보 받은 그들에게는 보다 관대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속성 특징은 비단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연속성의 특징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서도 흔히 목격된다. 한국문화 내에서 세습이나, 상속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⁵⁾. 한국의 재벌 세습 여타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부자관계축의 연속성 특징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것은 문화적으로 정당한 결과이다. 이처럼 부자관계 축이 중심이 되는 A타입 문화의 특징인 생물학적-사회적 연속성의 강조는 혼혈인을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며, 부자관계 축의 다른 특징과도 맞물리면서 혼혈인 배척을 정당화 시킨다.

5) 부부관계 축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도 상속은 흔한 현상이다. 이는 부부관계축 중심 사회도 부자관계축을 기본으로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보다 강한 세습과 상속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반해 B타입 문화에서는 단절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으며 한 대에서 가족은 종결되고 다음세대와는 단절을 이룬다. 즉 단절성은 부자관계축의 연속성과는 정반대의 문화코드이다. 가족은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자녀로 끝나는 것이며, 개인은 조상과 자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는다.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절차인 결혼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가족 간의 결합으로도 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양의 경우 한국이나 동양에 비해 입양을 많이 한다. 혈통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않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인종의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혼혈인을 대하는 방식도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절성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서양의 경우 개인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는 방식인 기부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고, 기업의 세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역시 자손에게 연속적인 그 무엇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한국문화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부자관계 축이 기본이 되는 문화에서는 서열성과 관계성이 강조된다. 미국과 다르게 한국의 경우는 상호간의 서열(주로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을 모를 때 깔고려운 기본이 드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열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의 자식이며, 몇 대손인지가 서열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 비단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누구와 누구는 어떤 관계인가가 서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서열성과 관계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 내에서 혼혈인이 위치는 불분명하다. 생물학적 연속성을 보장 받지 못한 이들은 누구의 자식인지 이야기 하는 것조차 힘들다. 어머니와의 관계만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것은 부자관계축이 중심이 되는 문화 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혼혈인들은 한국문화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서열내지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깔고려운 심리적 상태를 유발 시키고, 이는 그들이 배척 되는 또 다른 이유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B타입 문화에서는 서열성과 관계성 보다는 평등성과 개별성이 보장된다. 즉 개인은 개인일 뿐이고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 평가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평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인은 개인으로써 평가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도 있

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하인스 워드의 성공은 이러한 문화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셋째로 부자관계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에서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포괄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심력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관계를 인정받으면 내 집단의 일원을 받아들여진다. 즉 같은 아버지 밑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손은 내 집단의 일원으로 포함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기업의 경우 그 구조에서 이러한 친족체계의 포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혼혈인의 경우 대부분 아버지가 외국인 남성인 까닭에 한국문화 내에서 내집단을 일원을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대로 서양의 경우는 개별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에 비해 혼혈인이 생활하기는 편한 문화적 토대가 된다.

결 론

위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유독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은지에 대한 문화적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비단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은 아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쉽게 목격된다. 어쩌면 혼혈인을 배척하게 되는 논리는 개인의 내부의 변별 시스템에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 혼혈인 배척의 매커니즘은 광기, 여성, 소수집단에 대한 배제논리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배제의 매커니즘이 강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문화의 토대는 간과할 수 없다. 한국문화의 경우 부자관계 축을 중심으로 혼혈인 배제의 논리는 문화적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식도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 법령은 부자관계축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난다.

혼혈인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문화와 국가정책의 동질성을 탓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문화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배제되었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고, 여타 소수집단들도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가의 정책도 쉼 없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을 보면 이렇게 노력하며 변화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문화 내에 부자관계의 축은 뿌리 깊은 문화적 토대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토대도 변화한다. 여성에 대한 문화도 변화 했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도 변화 했다. 혼혈인에 관해서 현재 청소년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의 정책이 현상의 뒷문을 닫는 역할이나 하게 되면 안 된다. 즉 모든 현상이 대세가 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뒤늦게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앞장서서 변화의 선두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야하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이 아닌가한다. 이번 하인스 워드는 우리에게 혼혈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유발 시켰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 보다 발전적인 그리고 문화와 현상의 변화를 선두 할 수 있는 혼혈인 정책입안을 기대해 본다.

토론

혼혈청소년의 법제도적 검토

혼혈청소년의 법제도적 검토

이 명 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

글을 들어가며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위드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면해 오던 혼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25사변을 전후한 전쟁으로 인한 혼혈아들과 그 이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 혼혈아들이 절대다수를 이루다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나 농어촌 총각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 가정들이 혼혈아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제도적인 차별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자체 반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법상 혼혈아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이나 문제점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현행법상의 혼혈아 관련 규정

현행법상 ‘혼혈인’이란 국적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국적이 없는 사람 또는 국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국적법 제2조).

1. 국적법

‘혼혈아’란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인 경우에 그 한국인 부모를 지칭하는 사회적인 단어로서, 우선 국적법에서 혼혈인을 한국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므로(국적법 제2조), 국적 취득과 관련한 차별이 없다.

2. 병역법 시행령

혼혈아에 대한 차별의 예로서 늘 인용되는 병역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이 분류되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군대 내에서의 차별을 해소하여, ‘현재의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대 내에서의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징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을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 바꾼 것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유를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현역이나 보충역에 징집된다는 규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군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징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로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국민의 인식변화를 전제로 하여 제2국민역에서 제외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 ‘자비유학자격’에서 ‘혼혈아로서 ...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를 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혼혈아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혼혈인차별금지특별법

현재 한명숙 국무총리내정자나 인권위원회 등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혼혈인차별금지특별법이란, 기존의 법제도적인 혼혈인 차별규정을 시정하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현행법상 어느 법에도 혼혈인을 들어 차별을 규정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법은 없으며, 법규정으로 피부색을 들어 국민을 분류하는 내용은 없다. 혼혈인과 관련된 문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식 문제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다국적간의 국민들이 교류하고 국제결혼도 일반화되어 가는 지금, 더 이상 순수혈통을 주장하며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혈통을 중시하고 가문을 따지는 우리 국민성에 이번 하인스 위드를 계기로, 스스로의 인식이나 편견을 반

토론

혼혈인의 인권실태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혼혈인의 인권실태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김 동 심

두레방 상담실장

들어가며

두레방은 1986년 의정부의 기지촌에 설립되어 기지촌의 성매매, 인신 매매된 피해여성들과 그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상담·지원하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특히 기지촌 여성들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90년 ~ 1998년까지 놀이방과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기지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또는 미군아버지를 둔 아이들이었다. 당시에는 미군아버지를 둔 아이들도 많았다. 두레방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는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지촌여성들에게는 혼혈아이들의 출산이나 양육의 문제가 필연적인 일이었으며 또한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어머니인 기지촌여성들과 아이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기지촌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힘든 클럽생활로 인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여성들과 그로인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다. 두레방의 놀이방, 공부방은 기지촌여성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간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었으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놀 수 있는 자신의 동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교육적·경제적·심리적인 지지와 현실적 도움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주여성들의 기지촌 성산업의 유입 증가로 인한 한국여성의 감소와 그에 따른 출산의 감소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로 1998년 놀이방과 공부방 프로그램을 정리하기까지 위의 프로그램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또한 두레방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의 두레방 근처 마을에는 소수의 혼혈아이들만 남게 되었고, 그 후 미군재배치로 인해 2003년에는 혼혈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한국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경기북부의 다른 곳은 의정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있지만 이들의 수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국여성들은 생계문제 등으로 최근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경기북부의 다른 도시 중 의정부 보다는 파주에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있고, 파주보다는 동두천에 아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레방은 1998년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리한 후에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으며, 계속해서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며 여성들의 자녀들도 함께 만나왔다. 그 후 혼혈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는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며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혼혈인들을 만나며 ‘기지촌혼혈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005년까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혼혈인다큐멘터리 <있다>를 제작하였고, 혼혈인과 외국여성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혼혈인의 인권실태

1. 혼혈인 차별의 배경

1) 용어

우리는 ‘혼혈인’을 지칭할 때 ‘혼혈인’이라는 용어자체가 우리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부정성을 느낄 수 있다. 혼혈인을 부르는 다른 용어들도 대부분 인종차별적이고 비하적인 말들이다. 예를 들면 ‘튀기’, ‘깡둥이’, ‘흰둥이’, 심하게는 ‘잡종’ 등이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혼혈인을 낳은, 혼혈인들의 어머니인 기지촌여성에 대한 비하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사회적 배타성과 편견 등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여진다.

이전에는 기지촌여성들을 흔히 ‘양공주’나 뽀새나고 더럽다는 뜻의 ‘양갈보’ 등의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말로 지칭하면서 차별하고 배제시켰다. 그 여성들이 낳은 혼혈아이들도 당연히 차별하고 배제시켰다. 더구나 혼혈아이들은 피부색으로 금방 구분되었기 때문에 더욱 차별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 기지촌여성이나 혼혈인에 대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단어 사용을 대안적인 말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어오면서 국제아, 아메라시안(Amerasian), 이중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의 말들이 제안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3년 ‘기지촌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를 찾지 못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그냥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도 ‘혼혈인’ 또는 ‘혼혈 청소년/혼혈아이들’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2) 민족과 인종⁶⁾

대한민국 수립(1948) 이래로 미국의 후원을 받은 모든 군사정부는 민

족주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뿐 아니라 독재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수단이자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장치로 이용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즉 일제식민지 지배,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국가민족주의의 기초가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이다.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등장한 박정희는 민주적인 선거로 탄생한 제 2공화국(1960-1961)을 ‘국가재건’이라는 미명아래 전복시키고, 자주적인 근대화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이끌어갈 ‘국민’을 탄생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철저한 반공의식과 ‘자립경제, 자주국방’이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경험을 지닌 대중들을 ‘민족’으로, 민족을 다시 ‘한국인’으로 묶어냈다. 더불어 한반도의 다양한 역사와 전통에 호소하여 민족공동체를 국가와 일치시키는 작업에 성공했다.

이러한 박정희의 ‘자주적 국민 만들기’는 민족 정체성의 강조와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즉 단일 민족국가로서 공동체의식이 국가재건의 정신적 토대이며, ‘자립경제, 자주국방’의 기여가 국민의 조건이고 ‘충화단결’은 국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형성된 국가 민족주의는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내 어떠한 차이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성격을 남성화, 군사화 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관계 속에서 한민족 수호는 가장 커다란 과제이기에, 시민/국민의 자격에 병역이 의무화 되었다. 병역 의무가 법제화됨으로써, 한국인 남성, 특히 군인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체’를 지닌 성인 남성이 가장 적합한 시민/국민이 되었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구성원들(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혼혈인 등)은 한국인 남성과 동등한 1급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국가민족주의는 그 존재조건상 본질적으로 다른 핏줄, 그 인종적 차이를 허용할 수 없다. 단일 민족국가 내 인종적 차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혈인들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지워져야 한다’. 국

6) <기지촌혼혈인 인권실태조사>15~17, 2003,국가인권위원회

가 민족주의가 인종차별주의로 전환하는 순간이다. 이처럼 혼혈인들은 반드시 혹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기에 국가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혼혈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혼혈인들의 배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부계혈통주의와 가부장제⁷⁾

미군과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호적에도 등록될 수가 없었다. 호주권의 의무적 승계는 기본적으로 부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은 대부분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기도 하였고, 그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아로 입가창립을 해야 했다.

또한 남성화된 국가와 가부장적인 문화는 공산주의와 국가안보라는 수사아래, 기지촌여성들의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였고, ‘달러 버는 애국자’라고 추켜세우며 정책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조장/지원하는 한편, 성매매 자체의 모든 결과와 도덕적 책임을 여성에게 물었다. 여성의 순결과 인종주의적 인식이라는 이중적 차별조건으로 인해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을 더욱 심리적으로 주변화 되었으며, 한국인의 인식 밖으로 추방당했다. 따라서 성매매의 결과물이자, ‘아비없이’ 더군다나 ‘아비가 한국 남성이 아닌’ 기지촌 혼혈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어떠한 문화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혼혈인들은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형성할 모든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정서적으로 고립감과 소외감을 갖게 되었다.

7) <기지촌혼혈인 인권실태조사>19~21, 2003, 국가인권위원회

2. 혼혈인에 대한 정부정책⁸⁾

1) 해외입양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1954년을 기점으로 해외입양을 희망하는 혼혈아들의 인원파악을 시작하였다. 1954년 11월 10명의 혼혈아가 미국으로 입양 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입양이 본격화 되었다. 1954년 8월, 혼혈이민수속을 단시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승만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고, 1955년 10월 미국 상원의원에 의한 ‘재한 혼혈인 원조를 위한 입법’ 발의가 있었다. 그리고 1956년 2월, 홀트씨(현 홀트복지재단 설립자)의 기금으로 미국으로 떠날 혼혈아들을 위한 수용기관이 설립되었고, 1956년 입양수속을 위해 보건사회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와 같은 관계부처의 협力が 진행되는 등 해외입양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홀트씨에 의해서만 미국으로 입양된 혼혈아동의 수는 모두 817명에 달했다. 당시 한명의 혼혈아동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게는 8개월, 짧게는 3개월 이었던 것을 보면 해외 입양이 시작된 1954년부터 4년 동안 상당히 많은 혼혈아동들을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57년 2월 2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한국의 혼혈아동의 이민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혈아동의 이민을 수용하는 미국이민특례법은 1959년 8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 시작된 한국정부의 해외입양을 위한 노력과 미국 사회복지기관의 한국혼혈아동에 대한 관심 덕에, 미국정부는 이민특례법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었다. 꾸준히 해외입양을 추진하던 정부는 1962년 9월부터 미국의 특별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입양이 곤란해지자 방향을 선회하여 혼혈아동의 국내적응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미국의 특별이민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해외입양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혼혈아동을 미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비

8) <기지촌혼혈인 인권실태조사>25~37 요약, 2003, 국가인권위원회

혼혈인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입양수속을 밟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고아입양특례법, 입양당사국의 국적법, 국내의 국적법 등 여러 법의 적용에 따라 한국의 혼혈아동은 입양이 가능하였다. 특혜는 없었지만 해외 선교단체와 같은 민간단체와 국내의 입양기관을 통해 혼혈아동과 국내의 비혼혈 고아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보내어 졌다. 그러나 복잡한 수속절차와 해외입양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혼혈아동, 어머니와의 정 때문에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상당수의 혼혈아동들은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다.

1981년 11월, 한국태생의 10대 혼혈인이 미국의 의회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인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이 있는 다음해인 1982년 8월 22일에 미국의회는 아시아지역 혼혈아들에게 미국 이민의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그것이 미국 이민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혼혈아들의 이민을 허용하는 아시아의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통과된 법의 내용은 1950년 이후 출생자부터 1982년 출생자까지 아버지가 미국시민일 근거가 있고 일정기간 동안(5년) 미국인으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으며 아시아지역 혼혈인들의 미국이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군주둔이 1945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1950년 사이에 출생한 혼혈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민에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혼혈인의 95%가 미국이민을 희망하였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수의 혼혈인들이 미국으로 떠났다. 입양기관과 미국/한국의 혼혈인 지원 단체의 협조를 받아 미국이민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국의 이민특례법이 통과된 후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의 문제는 잊혀지기 시작했다.

2) 교육

정부가 해외입양을 꾸준히 추진하던 시기에 미국의 특별이민법이 만료

되면서 해외입양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초로 고안된 정부정책은 혼혈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었고 처음으로 혼혈인을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혼혈국민학교(영화국민학교)의 설립은 1962년 8월 15일에 계획이 발표되었고, 1962년 9월 3일부터 입학생을 받았다. 이는 1959년 혼혈아동에게도 일반 국민학교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문교부의 방침을 선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설립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과연 혼혈아동의 분리교육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정부가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한국사회 최초로 혼혈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혼혈국민학교는 혼혈아동의 수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1964년 8월 5일자로 비혼혈아동 대상 국민학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혼혈인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개교당시 학생수가 50명이었는데, 폐쇄될 당시에는 74명의 학생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기지촌이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혼혈아동의 감소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아마도 해외로 입양될 혼혈아동에게 실시되는 교육정책은 불필요한 재정낭비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3) 병역 및 직업훈련

혼혈인들이 성장하면서 정부는 이제 입양이 아닌 이민을 통해 혼혈인들에게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70년 10월 직업교육이 실시된 바 있었다. 혼혈인들의 해외이주 또는 해외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따라서 1972년부터 혼혈인들의 병역은 면제되었고 1974년부터 예비군훈련까지 면제되었다.

1970년 직업보도원 설치이후 정부는 1978년 6월 혼혈인 전용직업훈련소를 설치하였다. 1978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보사부에서는 6월 20일, 대한적십자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 7천만원으로 혼혈인 전용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소는 이후 1년간 운영되고 난 뒤 비혼혈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원으로 바뀌었다. 혼혈인들이 기술을 익히더라도 고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없었고 해외의 이민 해당국에서 기술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혈인들의 해외취업이나 국내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업훈련소는 3기 훈련생까지 받고 이후 비혼혈인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였다.

4) 생계지원 및 학비보조

빈곤으로 인한 혼혈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당시 생활이 곤란한 혼혈가정을 위해 1978년 2월부터 지원하였다. 지원내용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월 7천원 ~ 1만원식의 생계비와 교육비 보조를 위해 중고생이 있는 가정에 월 7천원씩,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5천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1978년 당시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 내역이 월평균 13만원~ 14만원이었던 것을 보면, 월평균 7천원 정도의 지원은 가구경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원항목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지출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3. 혼혈인 인권실태

1) 유아기 및 청소년기

(1) 양육

혼혈인들은 대개 어머니 밑에서 양육되거나 외가 친척에 맡겨져 양육되었다. 어머니가 혼혈인자녀를 양육할 때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동네유모에게 도움을 받거나 동네 공부방에 맡겨지기도 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면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단칸방에서 어머니의 성매매를 지켜보면서 성장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보통 혼혈인 자녀에 대한 감정은 매우 애뜻하며 관계도 좋은 편이다.

(2) 입양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혼혈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해외로 입양하는 결정을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혼혈인을 내보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아이들 스스로도 차별당한 경험으로 미국으로의 입양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원자를 찾지 못하거나 아이를 차마 멀리 미국으로 보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지 않고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생활이나 구직 시 또는 성격의 소심함 등에서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겪고 혼혈자녀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혼혈자녀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 싫거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입양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살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다.

(3) 학교생활

혼혈인 1세대들은 고아원이나 혼혈아 수용시설에 살면서 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1970년대나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혼혈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일반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늘었다. 2003년에 우리가 면접을 실시한 혼혈인들은 학교생활 중 놀림(73.3%)과 따돌림(64.4%), 구타(41.9%) 선생으로부터의 불합리한 대우(61%) 등을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도 42.2%나 되었다.

그러나 남성혼혈인에 비해 여성혼혈인들은 학업을 포기하기보다 되도록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들은 남성혼혈인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을 하는 등의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학교생활로부터의 차별을 되도록 참아냈다. 여성혼혈인들이 학교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선택할 수 있는 생활은 제한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학교에서의 차별을 가장 소극적

으로 대응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의 길로 빠져들기 쉬웠다.

2) 혼혈인의 생활

2003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혼혈인들은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가장 많았고(38.6%), 다음으로는 2인(34.1%)으로 구성되어있는 가족이 많았다. 혼혈인 독거가구(9.1%)는 어머니의 사망이나 재혼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게 되며 혼혈인이 결혼하여 구성된 2세대 혼혈가족들도 있다. 우리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수입이 평균 101만원으로, 월평균 생활비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현재 상담·지원하고 있는 혼혈인 가구는 대부분 이 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극빈층에 해당하는 가구도 많다.

혼혈인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이며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졸업(24.4%)이나 무학(22.2%)이 제일 많고 어머니들이 했던 직업을 살펴보면 빨래나 행상 등의 일과 클럽여성과 식당보조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월세나 무상 주택에 살고 있으며(월세 51.1%, 무상 24.4%) 전세 가구인 경우에는 전세금 평균 800만원이었다.

현재 경기북부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인한 미군의 이동과 기지의 통폐합으로 지역 경제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03년 말에 파주의 기지들이 한국정부에 반환되고 동두천으로 미군들이 이동하면서 파주의 땅값과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혼혈인이나 기지촌 여성들이 주거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주 등을 고려하는 가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혼혈인들은 오랜 차별과 폭력의 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 항의하기 보다는(22%) 단지 참는 것(51.1%)으로 대처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경우(11.1%)가 많았다.

이들의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노동의 기회로부터 좌절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당하며 어머니의 빈곤의 경험을 다시 자신이 노동능력을 갖

게 된 후에도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2003년에 우리가 조사한 혼혈인들의 직업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직이었으며, 그 외에는 건설노동이나 연예인, 가사임금노동 등이 있었다.

무직과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은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살아가는 혼혈인들을 만들고 그들의 좌절감을 커지게 하고 스스로를 사회에서 배제시키게도 하고 관계의 단절 등을 가져오는 등 악순환 되면서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오며

- 혼혈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두레방에서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혼혈인들은 대부분 혼혈인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82.2%). 그 중 제일 많은 혼혈인들이 생계보장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33.3%).

특히 혼혈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구직 시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한다.

혼혈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꼽는 어려움이 생계문제와 아이들 학비문제이다. 그리고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혼혈인들이 일상적인 차별의 경험이 빈곤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배제의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구타와 폭언, 놀림과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결과로 혼혈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중감을 침해받으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장애를 겪고, 자신들이 속한 관계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혼혈인들을 피해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 혼혈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문화적인 안전망 구축과 인식전환의 노력들이 모색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1. 법 · 제도적 지원책 마련

혼혈인을 비롯해 모든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등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지원정책이나 법안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이나 법안들이 혼혈인을 비롯해 모든 인종에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정책에는 노동의 권리나 사회권보장, 교육권 보장, 생계보장, 상담/치유 등의 지원 등 실질적인 내용 등이 담겨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일을 총괄할 전담 기구의 설치나 관련 부터간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 교육현장에서의 인권 · 다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친구나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이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기반을 넓히고 차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회 · 문화적 인식의 재고를 위한 노력

모든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들의 신중한 보도, 프로그램,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사회문화적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혼혈인을 부정적 표현하는 용어 등의 내용에 대한 노력들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혼혈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안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낳은 기지촌의 나이든 한국여성들의 문제와 현재 많이 늘어나

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함께 포함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혼혈인 지원 정책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 실효성 있는 법과 장치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혼혈인을 차별하면서 쌓은 잘못들을 또 다시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 있다.

혼혈인을 낳은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정부가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조장을 하였다. 그 결과물로 혼혈인을 낳은 여성들의 수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현재 늙고 병들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권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혼혈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성장과정의 차별,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기지촌여성들과 혼혈인들을 한번 더 가중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여성들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게 국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혼혈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혼혈인의 어머니,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모든 혼혈인의 어머니가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주장은 아님을 밝힌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은 현재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주노동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기지촌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85% 이상을 이주여성들이 차지하게 되고 클럽을 정리하고 미군과 결혼하여 동네에서 살던 혼혈아이들도 미군아버지를 따라 한국 내 다른 지역이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면서 아이들의 수는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기지촌의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미군과 결혼이나 동거/성매매 등으로 출산한 아이들이나 이 여성들이 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지촌에서의 비율은 작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주여성들이 한국남성들이나 이주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거나 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다. 기지촌 외의 지역에서는 이주여성이 미군과 결혼하는 비율 보다는 한국남성이나 이주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고려와 지원정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아이들은 현재 이전에 그리고 현재 혼혈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다. 혼혈인들의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함께 고민될 때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혼혈인 차별의 경험은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건 우리의 다음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한다.

부록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전문 상담을 통한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작성자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진실된 결과를 위하여 솔직히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련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영선 02-2253-3437

☺ 모든 문항에 대해 한개 번호만 ✓표 해주세요(단 11번은 여러 개).

I. 인적사항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만_____세
3. 학교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기타_____
4. 학교형태 : ① 일반학교 ② 대안학교 ③ 일반학교 아닌 학원
④ 학교 다니지 않음 ⑤ 기타 : _____
5. 우리 집의 가정형편은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산다 ⑤ 매우 잘 산다
6. 최저생계 유지비를 외부(동사무소, 기관 등)에서 받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7.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① 한국인 ② 외국인 ③ 한국과 외국인 모두
④ 한국과 외국인 모두 아니다 ⑤ 기타 _____
8. 당신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은 당신을 누구로 대하고 있습니까?
① 한국인 ② 외국인 ③ 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로 대한다
④ 한국인도 외국인 둘 다 아니다 ⑤ 기타 _____
9. 앞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10.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선택해주세요.

- ① 사회의 편견과 차별 ② 취업의 기회 ③ 교육의 혜택
④ 혼혈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⑤ 자녀를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라서
⑥ 기타 _____

11.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누나/여동생 ④ 형/남동생 ⑤ 할아버지
⑥ 할머니 ⑦ 삼촌/이모 ⑧ 조카 ⑨ 가족관계 없음/ 모름

12. 어머니의 학력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⑥ 알지 못함

13. 어머니의 직업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②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③ 군인
④ 공장 및 건설노동자 ⑤ 자영업(상점 경영) ⑥ 야간업소 관련 일
⑦ 체육인 ⑧ 연예인 ⑨ 종교인
⑩ 가정주부 ⑪ 기타 _____ ⑫ 알지 못함

14. 어머니의 인종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① 한국인 ② 백인 ③ 흑인 ④ 라틴계 ⑤ 아시안 ⑥ 기타 : _____ ⑦모름

15. 아버지의 학력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⑥ 알지 못함

16. 아버지의 직업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②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③ 군인
④ 공장 및 건설노동자 ⑤ 자영업(상점 경영) ⑥ 야간업소 관련 일
⑦ 체육인 ⑧ 연예인 ⑨ 종교인
⑩ 가정주부 ⑪ 기타 _____ ⑫ 알지 못함

17. 아버지의 인종 유형을 선택하여 주세요.

- ① 한국인 ② 백인 ③ 흑인 ④ 라틴계 ⑤ 아시안 ⑥ 기타 : _____ ⑦ 모름

*** 주변사람들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번호	대상	관계가 매우 나쁘다	관계가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계가 좋은 편이다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대상 없음
18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19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0	한국인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21	혼혈인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22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II. 문제 관련 경험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3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24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욕이나 매맞음)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아르바이트 등)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6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교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혼혈을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컴퓨터 사용(인터넷, 채팅, 게임 등)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3	스트레스로 담배나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34	자살 충동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5. 만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놀림 받기 때문에 ②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③ 공부가 싫어서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선생님과 아이들이 싫어서 ⑥ 기타_____

36. 차별이나 불합리한 경험을 했을 때 당신은 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참는다 ② 바로 항의 한다 ③ 무시 한다
④ 폭력을 쓴다 ⑤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표현 한다 ⑥ 차별받은 적 없다
⑦ 기타 _____

37. 당신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모문제 ② 사회적 냉대와 차별 ③ 부모님의 문제
④ 친구문제 ⑤ 경제적 어려움 ⑥ 학업문제
⑦ 기타_____ ⑧ 만족하므로 해당 없음

Ⅲ. 미래 모습

38. 당신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돈을 많이 버는 것 ②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③ 성숙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
④ 내 취미와 소질 개발 ⑤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⑦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⑧ 기타 _____

39. 당신의 미래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친구나 또래 ④ 선생님
⑤ 이웃 ⑥ 유명인 ⑦ 대중매체 ⑧ 신문, 잡지
⑨ 학교 공부 ⑩ 기타 _____

40.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면 어떤 직업을 택할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② 전문직(의사, 학자 등) ③ 자영업(상점 경영)
④ 서비스업 ⑤ 공장 및 건설 노동자

- ⑥ 교직(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⑦ 군 관련 종사자(군인, 경찰 등)
⑧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게이머) ⑨ 예술인(화가, 사진사, 디자이너)
⑩ 체육인(운동선수, 스포츠 해설가 등)
⑪ 연예 및 방송인(가수, 배우, 모델, 아나운서 등)
⑫ 종교인(목사, 신부 등) ⑬ 농축산업(목장, 과수원 경영 등)
⑭ 가정주부 ⑮ 기타_____

41.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②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③ 직업에 대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④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⑤ 기타 _____
⑥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2. 당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희망적이다 ② 희망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비관적이다 ⑤ 매우 비관적이다

43. 만일 당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다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학교 및 기술 교육 지원 ② 일자리 지원(직장, 취업)
③ 법률적인 지원(호적, 이민법) ④ 경제적인 지원(생계비)
⑤ 주위 사람들의 관심 ⑥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⑦ 내 스스로의 노력 ⑧ 기타 _____

44. 혼혈인으로 성공한 사람들(하인즈 위드, 혼혈 연예인 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존경하고 이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
② 성공이 부럽지만 나와는 다르다고 느낀다
③ 별로 관심 없다
④ 이들의 성공이 내 상황과 달라 기가 죽는다
⑤ 나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화가 난다.
⑥ 기타 _____

45. 요즘 혼혈인에 보이는 사회적 관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실제 문제는 모르고 겉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 ② 일시적인 관심이라 얼마 못갈 것이다
- ③ 일시적인 관심이라도 의미가 있다.
- ④ 사회적 관심을 통해 혼혈인 문제를 잘 알게 될 것이다.
- ⑤ 기타 _____

IV. 당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에 빠짐없이 ✓표 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6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계속 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의 인생관은 크게 변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앞으로도 나는 현재의 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일단 친구를 사귀면 오랫동안 우정을 지속 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 중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내 장래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꾸준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56	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다” 고 말해보면 듣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57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8	나는 개성이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9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이 세상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1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64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6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7	내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8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69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70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은 후회할 것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1	나는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을 존경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안돼” “싫어” 라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3	나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4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①	②	③	④	⑤
75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해도 선뜻 부탁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6	나는 존경하는 인물이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77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78	이유없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9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0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거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81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장래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3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84	나는 계획표를 짜면 대개 그대로 실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5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6	나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87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8	나 자신에 대해 나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①	②	③	④	⑤
89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90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91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2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즐겨한다	①	②	③	④	⑤
93	나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나 자신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4	나는 친구들 사이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평이 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5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6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7	나는 믿음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98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99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00	나는 내 약점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101	나는 어떤 일이 싫을 때는 분명히 싫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2	다른 사람들이 권해도 내가 싫은 일은 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3	어른의 말씀이라도 틀렸다고 생각되면 틀렸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4	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5	나는 다른 사람과 의논할 때 내 의견을 분명히 제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